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25권 제1호 (2021년 6월)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21;25(1):1-70.

[원저 Original Article]

『동의보감』 맥진 의안 고찰 및 맥진 장부 定位에 대한 浮中沈 배속법 제안

임승일¹, 박훈평², 나창수^{1*}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case on the pulse diagnosis of *Dongueibogam* and proposal of Inch-Bar-Cubit assignment for organ positioning in pulse diagnosis

Seungil Lim¹, Hunpyeong Park², Changsu Na¹

1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In order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Inch-Bar-Cubit used by pulse diagnosis, this study investigates floating pulses of lung and heart in the Inch area, middle pulse of spleen and livers in the Bar area, and deep pulse of kidney and life gate in the Cubit area. However, some suggested that the meaning of Inch-Bar-Cubi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floating-middle-deep.

Methods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Inch-Bar-Cubit assignment of pulse diagnosis proposed by *Dongueibogam* and Medical Scientist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existing investigation of pulse diagnosis, and their interpretation was investigated.

Result and conclusion

The assignment of books in Pulse diagnosis can be applied by replacing them with floating-middle-deep instead of Inch-Bar-Cubit.

Key words

Pulse diagnosis, Inch-Bar-Cubit(寸關尺), Floating-middle-deep(浮中沈), Organs, Positioning, Assignment

* 교신저자 : Changsu Na /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136, Dongshindae-gil, Naju-shi, Cheollanam-do, 58245, Republic of Korea
Tel: *** - **** - **** Fax: +82-61-330-3502, E-mail: nakugi@hanmail.net

I. 서론

한의학은 “한국에서 기원하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 발전한 인체의 구조·기능을 탐구하여 보건의 증진,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¹⁾이며, 현시점에서 한의학은 현대의 인식과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해야 하는 ‘현대한의학’이어야 한다.

한의학에서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맥진은 寸口診法이다. 寸口란 氣口, 脈口라고도 하며 손목 뒤 高骨(요골의 경상돌기 근위부의 돌출 부위) 안쪽으로, 요골동맥이 통과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寸口部位의 脈動 즉, 脈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이 寸口診法이다. 寸口診法에 있어서 五臟 定位은 五臟의 診斷點 位置를 확정하는 것이다. 오장 定位에서 오장은 장기의 실체를 말함이 아니며 臟象에서 그 계통을 지정한다²⁾. 현재 한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정통적인 맥진의 오장 定位法은 촌관척 장부배속이론에 따른 정위법이다³⁾.

촌관척 장부배속이론은 寸口 부위를 촌관척 세 부분으로 나누어 高骨을 기준으로 그 내측 부위는 關이 되고, 關의 앞부분(손목 쪽)은 寸, 關의 뒷부분(팔꿈치 쪽)은 尺이 되며 좌측과 우측이 합하여 六部脈이 된다. 좌측의 寸은 心, 關은 肝, 尺은 腎, 우측의 寸은 肺, 關은 脾, 尺은 命門(心包)으로 배속되어 ‘五行子母相生’의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

촌관척 배속법에 따른 임상례로 『다시 생각해 보는 한의학』⁴⁾의 「寸口脈分候臟腑別議」에 따르면 3,705개 醫案 중 脈象이 기록된 것은 2,690례이며, 이중 ‘六脈分屬臟腑定位’ 이론에 부합하는 예는 170례로서 부합률은 6.3%이다. 또, 外感時病의 정황에 있어서도 脈象이 기록된 309례 가운데 ‘六脈分屬臟腑定位’ 이론과 부합하는 예는 25례로 부합률은 8.1%이다. 이는 기존의 한의 임상에서 실제 촌관척 배속법 사용 빈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 임상에서 다용되고 있는 『東醫寶鑑』에서 맥진이 표기된 醫案(증례 보고 외에 맥상의 구체적 묘사가 나타난 진술을 모두 포함한다 - 편집자 주)을 조사하여 그 중 촌관척 배속법에 따른 맥진 醫案의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寸關尺 맥진 방법이 ‘현대한의학’이라는 인식과 사고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임상 실제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浮中沈 맥진 방법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II. 본론

1. 『東醫寶鑑』 맥진 醫案 조사 방법

『東醫寶鑑』 맥진 醫案 기록을 조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994년 출판된 『東醫寶鑑』(南山堂)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 2) 脈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醫案만을

채택하고, 맥진에 대한 이론적인 기술은 배제하였다.

예시1) p.485 (診脈門) [脈이 크면 病이 增進하는 경우] 脈이 大하면 반드시 病이 增進하니 大라는 것은 洪의 別名이요 火의 象이다.

예시2) p.486 (診脈門) [肥瘦 長短의 異脈의 경우] 대개 肥人은 肌膚가 두껍기 때문에 脈이 沈한 것이요 瘦人은 肌膚가 얇기 때문에 脈이 浮한 法이다.

예시3) p.486 (診脈門) [老少男女의 異脈의 경우] 男子는 左脈이 强하고 右脈이 弱하며 女子는 右脈이 强하고 左脈이 弱한 法이다.

3) 寸관척의 언급은 없지만 ‘陰脈, 陽脈, 三陽, 三陰, 少陰脈, 下部脈, 心脈, 肝脈, 등’ 구체적인 脈의 部位를 표시한 경우는 별도로 조사하였다(별표1에 별도 표시). 다만 ‘六部脈, 右手脈, 左手脈, 兩手, 三部脈 등’은 寸口脈 전체를 지시하므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예시) p. 422 (前陰門) [脈法の 경우] 婦人의 少陰脈이 滑하고 數한 것은 陰孔 가운데 瘡이 난 것이요 少陰脈이 浮하고 動할 경우 浮하면 虛가 되고 動하면 痛이 되며 婦人이면 陰이 脫下한다.

4) 趺陽脈, 人迎脈, 氣口脈 등은 寸口脈 診法이 아니므로 별도로 조사하였다. 특히, ‘氣口脈’은 寸口脈임이 확실하나 ‘人迎脈’은 左手의 寸口脈인지, 총경동맥의 脈動인지 異論이 존재하므로 寸口脈 診 醫案에서 배제하였다(별표3).

예시1) p.29 (氣門) [脈法の 경우] 仲景曰 趺陽脈이 微하고 緊할 때에, 緊한 것은 寒한 症이며 微한 것은 虛한 症이

고 微와 緊이 相搏하면 短氣가 된다.

예시2) p.174 (小便門) [關格症의 경우] 內經에 가로되 人迎脈이 氣口보다 4배로 크면 格이 되고 氣口脈이 人迎보다 4배로 크면 關이 되는 法이다.

5) 醫案 중 病程에 따라 脈象이 변한 경우는 하나의 例로 간주하며, 서로 구별되는 病程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수에 해당하는 例로 간주한다.

예시) p.537 (風門) [破傷風의 脈法の 경우] 瘧脈은 弦直하고 或은 沈細한데 조금 脈을 내어 풀고자 하면 脈의 發하는 것이 마치 蠶과 같으니 弦緊한 것은 오히려 可하거나와 伏堅한 것은 안된다. 이것은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2. 『東醫寶鑑』 맥진 醫案 조사 결과

『東醫寶鑑』 맥진 醫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전체내용을 별표1과 별표2 및 별표3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寸관척 배속법과 맥진 부위가 표기된 醫案(조사 조건3)을 모두 포함한 『東醫寶鑑』의 모든 맥진 醫案의 총수는 1,497개이다. 寸관척 배속법에 의한 醫案의 개수는 137개이며 寸관척 외 맥진 부위가 표기된 醫案(조사 조건3)의 개수는 85개이므로, 寸관척 배속법을 포함한 맥진 부위가 표기된 醫案은 222개이다. 따라서 寸관척 배속법에 의한 醫案은 137/1,497으로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다시 생각해 보는 한의학』의 「寸口脈分候臟腑別議」에서 제시한 비율, 6.3%를 약간 상회하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

Table 1. An analysis on the case reports containing pulse diagnosis in *Dongeuibogam*

『東醫寶鑑』 맥진 醫案 분석

| | 內景篇 | 外形篇 | 雜病篇 | 寸關尺 表記 | 合計 |
|----------|-----|-----|-----|-----------|-------|
| 脈診 醫案 | 266 | 212 | 882 | 137 | 1,497 |
| 部位 表記 醫案 | 18 | 30 | 37 | | 222 |

는다. 오히려 『東醫寶鑑』은 『醫學入門』과 더불어 촌관척 배속법을 따르는 유형의 대표적인 의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촌관척 배속법에 따르는 맥진법이 10% 미만이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東醫寶鑑』이 촌관척 배속법을 따르는 이유는 첫째 許浚이 1581년(선조 41)에 간행된 『纂圖方論脈訣集成』의 저자라는 점이다. 이 책은 기존의 『纂圖脈訣』을 교정한 책이다. 둘째 『脈訣』은 조선시대 내내 의관 취재와 의과의 교재로 활용된 점이다⁵⁾. 『東醫寶鑑』 저술 과정에서 국가의 표준 맥진법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촌관척 배속법과 그외 맥진 부위가 표기된 醫案(조사 조건3)은 222/1,497으로 전체의 14.8%에 해당한다. 촌관척 배속법 외의 맥진 부위가 표기된 醫案의 경우는 촌관척 배속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浮中沈 배속법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陽脈, 陰脈, 三陽脈, 三陰脈, 上部脈, 下部脈’ 등은 촌관척에서 각각 ‘寸과 尺’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浮와 沈’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 ‘心脈, 肝脈’ 등 五臟脈이나 ‘夏脈’ 등 季節脈은 浮中沈

배속법으로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사한 것은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함에도 85% 이상의 醫案은 촌관척 배속법과 전혀 무관한 醫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東醫寶鑑』 맥진 醫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를 표1과 같이 얻었다.

『東醫寶鑑』에서 맥진이 기록된 醫案을 조사한 결과, 맥진에 있어서 촌관척 배속법은 임상 실제에서는 활용이 제한되며, 이론적이고 도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맥진의 오장 定位 및 방법에 있어서 촌관척 배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 맥진의 寸關尺 배속법 및 浮中沈 배속법

1) 촌관척 배속법의 제한점

寸口部位의 脈動 즉, 脈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것이 寸口診法이다. 寸口診法에 있어서 五臟 定位는 五臟의 診斷點位置를 정하는 것으로 정통적인 맥진의 오장 定位法은 촌관척 장부배속이론이

다³⁾.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전개는 전통적 인식에 머물러 있을 뿐, 현대의 인식과 사고로 볼 때는 다음 세 가지의 제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寸口 부위를 좌우로 구분한 것은 左血右氣의 이론에 따른 것⁶⁾으로 인체의 좌우를 각각 血과 氣의 기능적 범주로 나누는 것에 기인한다. 촌관척 맥진법에 따르면 心, 肝, 腎은 血과 관련된 계통이므로 좌측에, 肺, 脾, 命門은 氣와 관련된 계통이므로 우측에 각각 배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左血右氣 이론은 기능적인 구분일 뿐 氣血이 인체의 좌우에만 각각 기능하거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좌측의 寸口脈에 血과 관련된 기능 장애만 나타나거나 우측의 寸口脈에 氣와 관련된 기능 장애만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寸口 부위를 촌관척으로 구분한 것은 각각 上焦, 中焦, 下焦에 대응하는 장상으로 定位한 것이다. 여기에는 肝이 下焦에 속함에도 中焦로 배속한 오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腎보다는 위쪽에 위치하므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보다 먼저 寸口 부위를 촌관척, 상하 방향의 세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경락학적인 측면에서 手三陰經은 井榮腧經合의 五輸穴이 말초로부터 經氣가 出溜注行人하므로⁷⁾ 요골동맥에서 상대적으로 말초 쪽이 상대적으로 체간 쪽보다 신체의 위쪽을 대표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인체의 작은 단위

(얼굴, 손, 발, 귀 등)의 체표를 인체의 오장육부나 기능체계, 구조물과 연계하는 이론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체내를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분별하는 데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인식론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특히, 임상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절대적이기보다는 방법론적이며 상대적으로 차용되었을 뿐이다⁸⁾. 寸口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요골동맥의 일부이며, 연속된 혈관을 구역으로 나누어 상하방향의 촌관척을 오장으로 定位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좌측 關部位부터 ‘左寸 - 右尺 - 右關 - 右寸 - 左尺’까지 ‘肝 - 心 - 心包(命門) - 脾 - 肺 - 腎’으로 각각 ‘五行子母相生理論’에 맞게 도식화하고 있다.⁹⁾¹⁰⁾ 인체는 그 구조와 기능계가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인 체계이다. 장상론적 방법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계를 오장 계통으로 구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와 인식이다. 다만 맥진의 부위를 좌우와 촌관척으로 구분하여 ‘五行子母相生’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이론의 틀 안에 넣는 건강부회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2) 부중침 배속법의 당위성과 용이성

이상에서 논구한 바와 같이 맥진의 오장 정위에서 촌관척 배속법은 현대의 인식과 사고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이 맥진 오장 定位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의가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따라서 보다 빨

리 해결점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의가들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寸口脈診 이론의 시대적, 사변적 전개에 있어서 최초의 지점은 『素問·脈要精微論』이라고 할 수 있다. 『素問·脈要精微論』을 살펴보면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附上左，外以候肝，內以候鬲；右，外以候胃，內以候脾。上附上右，外以候肺，內以候胸中；左，外以候心，內以候膻中。前以候前，後以候後。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¹¹⁾라는 언급이 있다. 첫 문구에 나오는 “尺”은 黃帝內經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촌관척 脈診의 언급이며, 당연하게도 이를 촌관척의 “尺脈”으로 본다는 인식이 촌관척 寸口診法의 장대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마땅히 尺裏 이상의 皮膚로는 胸中の 病을 살핀다.”¹²⁾라고 하였고,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분명 여기서의 尺은 팔 안쪽의 一尺이 되는 부분이며 결코 촌관척의 尺이 아니다. 寸口를 촌관척의 세부분으로 나눈 것은 『難經』에서 시작되었다. 馬蒔와 張介賓 등의 여러 의가들이 촌관척의 尺으로 해석한 것은 『內經』의 뜻과 어긋난다.”¹³⁾라고 하여 “尺”은 “尺脈”이 아니라 “尺膚”를 뜻한다고 하였다.¹⁴⁾ 이는 『素問·脈要精微論』이 언급이 촌관척 寸口診法에 대한 原流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朝鮮末 李圭駿의 견해는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李圭駿은 『素問大要』 「素問附設·脈解」에서 “尺者氣口之下位，言其深也。”라 하여 “尺”은 “深部”라고 하였다. 또한 “左右者，層數也”라고 하여 “左右”는 “上下”의 의미로 해석하고 “內外”를 각각 “浮部”와 “沈部”를 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脾胃를 제외하고 ‘外’에 藏을 배속시키고 ‘內’에 府를 배속시킨 經文을 ‘內에 藏, 外에 府’로 서로 바꿔서 교정하였다.¹⁵⁾ 그리고 “『難經·二難』의 ‘從關至尺澤是尺內，從關至魚際是寸口.’는 脈을 짚는 방법이 輕重法과는 서로 모순되므로 王叔和가 『脈訣』을 作함에 이르러 經義를 어지럽게 한 것”이라 하여, 촌관척 기구맥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규준의 관점(輕重法)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언급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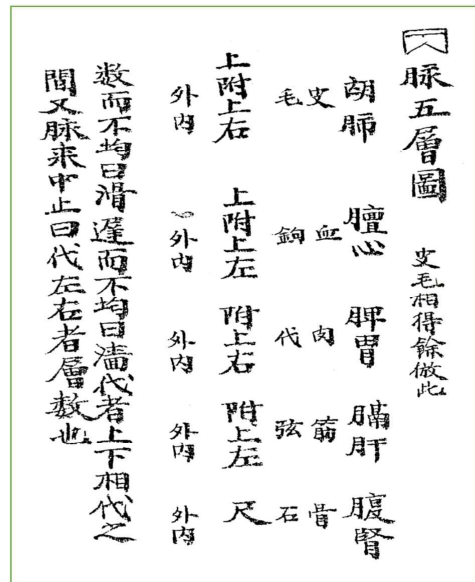


Figure 1. Lee Gyojoon's illustration on the five stratum in the arterial pulse
李圭駿의 脈五層圖

Table 2. Understandings on *Maiyaojin gweilun* in *Suwen* by Lee Gyooj oon.

李圭駿의 『素問·脈要精微論』에 대한 인식

| 部位 | | 配屬 |
|-------|--------|-------|
| 上附上 | 右(上) 外 | 胸 |
| | 右(上) 內 | 肺 |
| | 左(下) 外 | 臆中 |
| | 左(下) 內 | 心 |
| 附上 | 右(上) 外 | 胃 |
| | 右(上) 內 | 脾 |
| | 左(下) 外 | 膈 |
| | 左(下) 內 | 肝 |
| 尺(=沈) | 外 | 腹 |
| | 內(裏) | 季脅(腎) |

李圭駿의 脈五層圖(그림 1)는 그의 제자인 李元世(無爲堂)의 筆寫本 『素問大要』 말미에 기재된 것이다.¹⁰⁾

이규준 외에 宋代 王宗正도 맥진의 浮中沈 배속법을 주장하였는데, 『本草綱目·脈訣考證』에 王宗正이 “當從心肺俱浮, 腎肝俱沈, 脾在中州之說。王叔和獨守寸關尺分部位, 以測五臟六府之脈者非也。”¹⁶⁾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難經』은 맥진의 촌관척 배속법뿐만 아니라 그와 모순되는 輕重法(浮中沈 배속법)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였다. 「四難」에서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然, 呼出心與肺,

吸入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浮者陽也, 沈者陰也, 故曰陰陽也。心肺俱浮, 何以別之? 然, 浮而大散者, 心也。浮而短澁者, 肺也。腎肝俱沈何以別之? 然, 牢而長者, 肝也。按之濡, 舉指來實者, 腎也。脾者中洲, 故其脈在中。是陰陽之法也。”라 하였고, 「五難」에서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按之至骨, 舉指來實者, 腎部也。故曰輕重也。”¹⁷⁾라 하였으며, 이는 이규준의 脈五層圖와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素問·脈要精微論』의 언급에서 “尺”이나 “左右”, “內外” 등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는 문헌적, 문자적으로 그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현대의 인식과 사고체계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규준이나 왕중정의 인식은 『脈語』¹⁸⁾나 『脈學輯要』¹⁹⁾, 『醫宗金鑑』²⁰⁾ 등의 오장의 정상맥에 대한 언급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肺脈이 皮毛와 相得한 부위로 가장 浮하면서 短澁하며, 心脈은 血脈과 相得하여 浮中沈하면서 大散하다. 脾脈은 肌肉과 相得하여 中 部位에 있으면서 緩大하고, 肝脈은 筋肉에 해당하므로 沈하면서 弦長하고, 腎脈은 骨에 닿는 곳까지 눌렀다 들면 實하게 오니 가장 沈하면서 細滑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²¹⁾

위와 같이 오장의 기능체계를 진단함에 있어 浮中沈 배속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맥진뿐 아니라 按診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東醫寶鑑·火門』의 「辨五臟熱證」에 “身熱有五，而其狀各異。肝熱者，按之肌肉之下至骨之上，乃肝之熱也。……心熱者，微按至皮膚之下肌肉之上，輕手乃得。微按至皮毛之下則熱少，加力按之，則全不熱，是熱在血脉也。……脾熱者，輕手捫之不熱，重按至筋骨亦不熱，不輕不重，在輕手重手之間，此熱在肌肉。……肺熱者，輕手乃得。微按全無，瞥瞥然見於皮毛下，日西尤甚，乃皮毛之熱也。……腎熱者，輕按之不熱，重按至骨其熱蒸手如火如灸。”²²⁾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장 각각의 熱證을 按診의 輕重에 따라 肺-心-脾-肝-腎의 순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촌관척 배속법의 宗祖라고 할 수 있는 王叔和조차 『脈經』²³⁾에서 “脈來浮大者此爲肺脈也，脈來沈滑堅如石腎脈也，脈來如弓弦者肝脈也，脈來疾去遲心脈也。脈來當見而不見爲病。病有淺深，但當知如何受邪。”라고 하였다. 비록 脾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脈의 淺深이 각 藏의 정상 상태와 관련이 있고 그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 질병 상태라고 인식한 것이다.⁹⁾ 이렇게 촌관척 배속법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오장의 정상맥을 浮中沈 배속법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은 관성적으로 현재 맥진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浮中沈 배속법의 활용 및 응용

한의 진단학에서는 촌관척 배속법이 주된 寸口脈診法이고 오장의 정상맥은 계절의 정상맥 정도로 소개하고 있을

뿐, 두 이론이 상충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필자뿐 아니라 많은 한의사에게 맥진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필자는 20여년의 임상 기간 동안, 맥진할 때 촌관척 배속법과 오장의 정상맥 개념을 같이 사용해왔다. 즉, 寸部位의 肺와 心의 맥은 浮取하고 關部位의 脾와 肝의 맥은 中取 혹은 中沈取하고 尺部位의 腎과 命門의 맥은 沈取하였다. 그러다 보니 寸部位의 脈이 沈脈으로 나타나거나 尺部位의 脈이 浮脈으로 나타나게 되면 病脈으로 인식하게 되는 모순이 생겼다. 또 좌우 촌관척 六部位에서 각각 28脈을 찾으려고 하기에 168가지나 되는 경우의 수를 탐색하려 함으로 실제 체득 및 이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좌우와 촌관척의 脈은 실은 하나의 장기인 심장에서 분지되어 나온 혈관의 脈動이므로 六部의 脈動은 동일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병리적인 상태에서는 좌우의 脈動은 分別이 생길 수도 있다. 촌관척의 脈動은 생리적이거나 병리적인 상태, 모두 동일하지만 左手와 右手의 脈動은 氣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 痰飲證일 경우)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左血右氣의 관점으로 인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체의 氣血이 순환함에 있어 순조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左手와 右手의 脈動이 다른 것이다. 임상에서 手足麻木症이나 手足癱瘓症 등의 경우와 같은 脈絡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脈에서는 좌우 촌관

척의 脈은 동일하며 그 脈은 “五層”으로 나타난다. 처음 가볍게 ‘三菽之重’으로 누르면 손가락에 느껴지는 느낌은 짧고 거칠게 나오게 되므로, 浮而短澁하다. 더 무겁게 ‘六菽之重’으로 누르면 손가락에 감촉되는 느낌은 더 커지면서 흩어지게 되므로, 浮而大散하다. 脈管의 가운데쯤에 해당되는 무게, ‘九菽之重’으로 누르면 손가락의 느낌은 크면서 느긋하게 되므로, 中而緩大하다. 脈管의 가운데에서 더 깊숙이 ‘十二菽之重’으로 누르면 손가락의 느낌은 길면서 팽팽하게 되므로, 沈而弦長하다. 그리고 至骨, 즉 脈動이 느껴지지 않은 깊이까지 눌렀다가 약간 떼면 가늘면서 몽글몽글 實하게 느껴지므로, 沈而細滑하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胃氣脈, 眞藏脈의 관점이다. 맥진에서 胃氣나 神, 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난치나 불치에 해당하는 眞藏脈이라고 한다.²⁴⁾ 여기에서 ‘胃氣’는 脈動의 和緩함이라고 하고, ‘神’은 脈動의 규칙성, ‘根’은 脈動의 根底의 힘이라고 규정하는데, ‘神’과 ‘根’의 속성은 不整脈(結脈, 代脈, 促脈 등)이거나 浮脈이나 芤脈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眞藏脈이 아니라 정상맥이거나 일반적 病脈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胃氣’의 속성인 脈動의 和緩한 성질은 모든 脈(28脈)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진정한 眞藏脈이 된다. 이 脈動의 和緩함이 바로 脾脈의 正常脈(中而緩大)의 和緩함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때, 맥진의 복잡한 법칙을 떠나 생리적인 脈과 병리적인 脈, 극도의 병리적인 脈과

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계에서 맥진에 의한 오장 배속법의 표준은 촌관척이다. 여러 한의학 원전에 제시되었고 현대의 많은 논문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浮中沈 배속법은 비록 소수의 의가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지만, 寸關尺 배속법에 비해 현대의 생리병리학적 인식과 사고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단순하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중침 맥진방법을 다른 실험실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사례에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맥진에 대한 많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들어내고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 임상에서 다용되고 있는 문헌인 『東醫寶鑑』에서 맥진이 기재된 醫案을 조사하여 그 중 촌관척 배속법에 따른 맥진 醫案의 비율을 조사하였고, 관련 의안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맥진이 기록된 醫案을 『東醫寶鑑』에서 조사한 결과, 寸關尺 배속법은 전체의 9.2%에 해당된다.
2. 맥진에서 오장 정위에 대한 寸關尺 배속법보다는 浮中沈 배속법이 현대의 생리병리학적 인식과 사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맥 觸診 부위는 脈動 감지가 가장 용이한 곳과 동일하므로 寸口의 원래 자리인 손목 뒤 高骨(요골의 경상돌기 근위부의 돌출 부위) 안쪽, 요골동맥이 통과하는 자리, 즉 촌관척의 關部位가 가장 적절한 부위이다.

4. 부중침 배속법에서 제시된 오장 정위 방법으로는 촌구맥 부위에서 가장 가볍게 누르면 맥의 넓이는 짧고(短) 거칠게(澁) 나오는 맥은 肺脈이며[肺脈浮而短澁], 중 부위에 못 미치게 조금 무겁게 누르면 맥이 커지면서(大) 흩어지게(散) 나오는 맥은 心脈이며[心脈浮而大散(鈎 또는 洪)], 맥관의 중간 부위 에까지 누르면 맥이 느긋해지면서(緩) 크게(大) 나오는 맥이 脾脈이며[脾脈中而緩大], 가운데에서 더 깊숙이 누르면 팽팽해지면서(弦) 맥의 넓이가 길게(長) 되는 맥이 肝脈이며[肝脈沈而弦長], 맥동이 느껴지지 않는 깊이까지 눌렀다가 약간 떼면 가늘면서(細) 구슬이 지나가는 느낌(滑)이 나는 맥이 腎脈[腎脈沈而細滑]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진 방법에 의하여 오장 정위를 적용할 수 있다.

5. 긴장맥은 胃氣가 없는 상태로 난치와 불치의 상태를 나타내며, 위기는 和緩함 즉, 脾脈의 中而緩大와 상통한다.

현시점까지도 한의학계의 맥진 배속법의 표준은 촌관척이며, 이에 따르는 한의학 원전과 현대의 논문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浮中沈 배속법은 寸關尺 배속법에 비해 현대의 생리

병리학적 인식과 사고에 좀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임상 적용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浮中沈 배속법에 대한 임상 활용 및 근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IV. 참고문헌

1. “한의학”. Wikipedia. accessed June 18, <https://ko.wikipedia.org/wiki/한의학>. “한의학”. 위키백과. 2021년 6월 18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한의학>.
2. Chidong Kim. A study on the concepts of Bowels and Viscera in *Huandinei jing Suwen*. midterm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san University. 1991, 18-19.
金治東. 黃帝內經(素問)에 나타나는 藏府概念에 關한 考察.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중간발표 논문. 1991, 18-19.
3. Lim Han-je. A study on the reason that pulse-feeling method of meridians diagnosis flows into diagnostic method by taking pulse of setting six region for Chon (寸), Gwan (關) and Cheok (尺), i.e. the Chon spot pulse.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03, 35.
任韓帝. 經脈診斷의 脈診法이 氣口脈의 寸關尺 六部定位脈診法으로 演變된 緣由에 關한 研究 : 脈診法の 變遷 推移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3, 35.
4. Qu Yueyun; the research group in 46th graduation preparation committee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Reconsidering on Oriental Medicine. Seoul, 46th graduation preparation committee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998, 255.
瞿岳云 편저, 경희대학교 46기 졸업준비위원회 학술부 역. 다시 생각해보는 한의학.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 1998, 255.
5. Hun-Pyeng Park. Review on medical texts in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6; 29(2): 1-16.
朴薰平.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1-16.
6. Seoung-Mi Park.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Right and Left in Oriental Medicine. Master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1998, 21.
朴承美. 韓醫學의 左右理論에 關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1.
7. Song Beum-Young. A study on the Book on Shu Peon (本輸篇) of the Young Chu (靈樞). Master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1996, 62.
宋範龍. 靈樞 本輸篇에 對한 研究.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62.
8. Nam MooKil. A comparative study on physiognomy and Hyungsang Medicine. 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2010, 33-41.
南茂吉.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 2010, 82-84.
9. Yang, Gun Il. A study on the pulse's division named Chon (寸) Kwan (關) Chuk (尺) by the Viscera and the Ent rails and on the pulse of disease according to eum-yang (陰陽) of the Mae k Kyung (脈經). Master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01, 6, 21-22.
양건일. 脈經·寸關尺 臟腑配屬과 陰陽病脈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6(본 논문 15쪽에서 인용), 21-22(본 논문 18쪽에서 인용).
 10. Hwang Won Duk, Kim Joong-Han.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viscera of the pulsation examination method of ht KiGu.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9; 12(1): 226-254. (cited from p.240 and p.249)
黃元德, 金重漢. 氣口脈診法の 藏府配屬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246-254.
 11. Wonsik Hong. *Huangdineijing Suwen*, a sophisticate collation. Seoul,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5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59.
 12. Yang Shangshan; Li Keguano, Zheng Xiaochang. *Huangdineijingtaishu*, collations and remarks.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2005, 511.
楊上善 著. 李克光, 鄭孝昌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511.
 13. Tanba Genkan. Somonshik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1984, 112.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12.
 14. Yang Kwang-yeol.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Jangbu (臟腑) to Chon·Gwan·Cheok (寸·關·尺) in Maekyojeongmiron (脈要精微論).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1): 27-34.
梁光烈. 『素問·脈要精微論』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1): 27-34.
 15. Lee Gyoojoon. The main gists of *Huangdineijing Suwen* (42th book of the Great Collection of Korean Medical Classics). Seoul. Ryeongang books, 1988, 315-316.
李圭峻. 黃帝內經素問大要(韓國醫學大系 第42冊). 서울, 麗江出版社, 1988, 315-316.
 16. Li Shizhen. critical research on *Maijue* (in *Bencaowangmu*). Hongkong, The Commercial Press, 1930, 4.
李時珍. 脈訣考證(本草綱目 附錄). 香港, 商務印書館, 1930, 4.
 17. Hua Shou; Yoon Chang-Yeol, Lee Nam Goo, Kim Seon Ho. A thorough translation of the *Fundamental meanings of Nanjing* with Korean postpositions. Daejeon, Jumin publishing com

- pany, 2003, 28.
 滑壽 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譯. 懸吐完譯 難經本義. 周珉出版社,
 2003, 28.
18. Wu Kun; Guo Junshuang. Discourse
 on arterial pulse in the *Entire Books
 written by Wu Kun* Volume 6. Beijin
 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186
 吳崑 著, 郭君雙 主編. 吳崑醫學全
 書·第6卷·脈語. 北京·中國中醫藥出
 版社, 1999, 186.
19. Tanba Genkan; Kyung Park, Heungje
 Kim, Jongho Kim. Combined edition
 of the *Collection of essentials in arte
 rial pulse palpation* and the *Discours
 e on arterial pulse*. Seoul, Daesung
 Culture publishing company, 1997, 3
 3-34.
 丹波元簡, 吳崑 著, 朴旻, 金興濟,
 全鍾皓 譯. 譯釋 脈學輯要·脈語. 서
 울, 大星文化社, 1997, 33-34.
20. Wu Qian. Golden Mirror of Medicin
 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
 g House company, 2011, 612.
 吳謙. 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2011, 612.
21. Dongguk Lim. Lectures on pulse dia
 gnostics in the *Introduction to Medic
 ine*. Paju, Mulgogisup publishing com
 pany, 2017, 75.
 林東局. 의학입문 맥학강의. 파주,
 물고기숲, 2017, 75.
22. Hur Jun. Miscellaneous disease in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
e. Seoul, Daesung Culture publishing
 company, 1990, 388-389.
 許浚 編著. 東醫寶鑑·雜病篇. 서울,
 大星文化社, 1990, 388-389. (第3冊.
 醫學發明 인용)
23. Wang Shuhe. Pulse Classic in the *Co
 mplete Records of Medical Division*
 Volume 3.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1983, 86.
 王叔和. 醫部全錄·第三冊·晋王叔和
 脈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86.
24. Compilation committee of *Practice in
 diagnostics of Korean Medicine*. Prac
 tice in diagnostics of Korean Medici
 ne. Seoul, Goonja publishing incorpor
 ation, 2017, 92.
 한의진단학실습 편찬위원회. 한의진
 단학실습. 서울, 군자출판사, 2017,
 92.

별표 1. 『東醫寶鑑』(남산당, 1994)에 수록된, 寸關尺 配屬法 表記 없는 脈診 醫案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맥 부위 표시 | |
|----|--------|-------------------------------------------------------------------------------|---------|----------------|
| | | | 출현 순번 | 표시 여부 출현 순번 |
| 身形 | 3 | 形이 充滿하고 脈이 堅大하면 順한 法이며 形이 充滿해도 脈이 작고 弱하면 氣가 衰한 法이니 | 1, 2 | |
| | 3 | 성이 急하면 脈이 또한 急하고 성이 緩하면 脈이 또한 緩하니 脈이 緩하고 遲한者は 壽함이 많고 脈이 急하고 數한 者は 夭함이 많다. | 3~6 | |
| | 3 | 脈이 急數한者は 氣血이 消耗되고 神機가 停息하기 쉬운 | 7 | |
| | 3 | 脈이 遲緩한 者は 氣血이 和平하고 神機가 損傷하기 어려운 | 8 | |
| 精 | 18 | 男子가 脈이 微弱하고 澁하면 無子하니 | 9 | |
| | 18 | 澁脈은 精血의 不足한 證候가 된다. 丈夫의 脈이 澁하면 傷精이라고 한다. 又曰 澁은 精이 竭하고 血이 마른 脈이다. | 10 | |
| | 18 | 微澁한 脈은 精을 傷한 것이다. | 11 | |
| | 21 | 아침에 下氣가 많고 저녁에는 噎氣가 많으며 上旬 中旬에는 반드시 遺精하고 脈이 弦滑하고 크며 正午에는 洪大하였다. | 12 | |
| | 22 | 脈이 極히 虛하고 芤하고 遲하면 清穀下利하고 亡血하며 失精한다. | 13 | |
| | 22 | 한 사람이 虛로 因하여 精을 泄하고 脈이 弦大한데는 | 14 | |
| | 22 | 脈을 잡으면 空虛한 것을 脫精 또는 脫神이라고 하니 | 15 | |
| 氣 | 29 | 脈이 浮하고 脈이 구슬처럼 나는 것은 衛氣가 衰한 것이다. | 16 | |
| | 29 | 寸口脈이 微하고 澁할 때, 微한 것은 衛氣가 衰한 것이며 澁한 것은 榮氣가 不足한 것이다. | 17 | |
| | 29 | 寸口脈이 芤번 떨어져 끊는 국의 고기점과 같은 것은 陽氣가 微弱한 症이며 芤해서 거미줄과 같은 것은 陰氣가 衰한 症이다. | 18 | |
| | 29 | 代한 것은 氣가 衰한 症이며 細한 것은 氣가 적은 症이요 浮하고 絶하는 것은 氣가 絶하려 하는 症이다. | 19~21 | |
| | 29 | 손으로 눌러보아 脈이 沈하면 이것은 氣病임을 알아야 한다. 沈이 極하면 伏澁弱의 脈이 되니 難治다. 或沈滑하면 氣病에 痰飲을 兼한 症이다. | 22 | |
| | 30 | 中風은 脈이 浮하고 몸이 濇하며 口에 痰涎이 많고 中氣는 脈이 沈하며 口에 차고 口에 痰涎이 없다. | 23, 24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氣 | 32 | 夏脈은 心인데 心脈이 이르지 못하면 아래로 氣가 泄하는 것이 이것이다. ……. | 25 | √ | 1 |
| | 32 | 寸口脈이 沈하면 胸中에서 短氣한다. | 26 | | |
| | 32 | 眞氣가 虛弱하여脈이 弱하고 말할 힘이 없으면 | 27 | | |
| 神 | 41 | 七情이 脈을 傷하니 기뻐하면 脈이 散하고 怒하면 脈이 促(혹은激)하고 걱정하면 脈이 澁하고 생각하면 脈이 沈(혹은 結)하고 슬퍼하면 脈이 結(혹은 緊)하고 놀라면 脈이 顛(혹은動)하고 두려워하면 脈이 沈한다. | 28~34 | | |
| | 41 | 기쁨이 心을 傷하면 脈이 虛하고 생각이 脾를 傷하면 脈이 結하고 걱정이 肺를 傷하면 脈이 澁하고 怒가 肝을 傷하면 脈이 濡하고 두려움이 腎을 傷하면 脈이 沈하고 놀람이 膽을 傷하면 脈이 動하고 슬픔이 心包를 傷하면 脈이 緊한다. 대개 七情의 脈은 오직 氣口가 緊盛할 뿐이나 細分하면 이와같다. | 35~42 | | |
| | 41 | 脈搏이 大하고 滑하여 오래되면 스스로 그치고 脈이 小堅하면 急死하여 다스리지 못한다. 또 이르기를 癲疾의 脈이 虛하면 다스릴 수 있고 實하면 죽는다. | 43~45 | | |
| | 41 | 脈이 浮洪大하고 長滑大하며 堅實하면 痰이 쌓여서 心이 發狂한다. 또 이르기를 脈이 大堅疾하면 癲狂이다. | 46 | | |
| | 41 | 恍惚하고 癲狂한데 脈이 實하고 大하면 順한 것이요 沈하고 細하면逆한 것이다. | 47, 48 | | |
| | 41 | 대개 脈이 急함이甚하면 모두 癲狂과 厥疾이다. | 49 | | |
| | 41 | 心中이 驚悸하면 脈이 반드시 結代하고 飲食으로 말미암아 驚悸한 症은 沈하며 伏하고 動하며 滑한 것이다. | 50, 51 | | |
| | 41 | 寸口脈이 動하고 弱한데 動하는 것은 驚이 되고 弱한 것은 悸가 된다. 또 이르기를 肝脈이 動하기를 暴하게 하면 驚駭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 52, 53 | √ | 2 |
| | 41 | 사람이 恐怖하면 …… 脈의 形狀이 실을 둘러서 서려있는 것같고 얼굴빛이 희고 脫色이 된다. | 54 | | |
| | 41 | 사람이 부끄러워하면 …… 脈이 浮하고 얼굴빛이 잠깐 희어졌다 붉어졌다 한다. | 55 | | |
| | 43 | 心驚 또는 膽攝이라고 하고 病이 心膽經에 있고 그 脈이 大하고 動하니 | 56 | | |
| | 48 | 身熱이 나며 脈이 浮한 症은 陽癘이니 妙香丸이 當劑요, 몸이 차갑고 脈이 沈한 症은陰癘이니 五生丸을 써야 한다. | 57, 58 | | |
| | 49 | 五生丸 ○陰癘에 몸이 차고 脈이 가늘고 느린데 쓴다. | 59 | | |
| 52 |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면 脈의 흐름이 薄하고 疾하여 狂症이 發한다. | 60 | | | |

16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神 | 52 | 癱疾은 始發할 때에 意志가 즐겁지 못하고 直視하며 僵仆하며 그 脈은 三部와 陰陽이 전부 盛하다. 難經 | 61 | | |
| | 54 | 六脈이 無力하며 皮膚가 氷石같았다. …… 脈이 살아나며 治療되었다. | 62 | | |
| | 54 | 脈이 모두 洪大하기가 거문고줄과 같은데 載人이 診斷하고 | 63 | | |
| 血 | 59 | 澁脈 濡脈 弱脈은 모두 亡血症이다. | 64 | | |
| | 59 | 失血에는 芤脈이 보인다. 脈이 沈細한 것을 貴하여지고 浮大한 것은 難治이다. | 65, 66 | | |
| | 59 | 芤脈은失血이고 澁脈은 少血이다. 또 吐血의 脈은 반드시 大하고 芤한다. 大脈은 發熱이요 芤脈은 失血이다. | 67~70 | | |
| | 59 | 코피가 몇지 않고 脈이 大한 것은 逆症이다. | 71 | | |
| | 59 | 脈이 손가락을 끝을 들어받고코피가 나오며 몸에 熱한 者は 죽는다. 또 腹脹하고 血便이 보이는데 脈이 大하고 때때로 끊어지는 者は 죽는다. | 72, 73 | | |
| | 59 | 吐血 衄血하면 맥은 마땅히 沈細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도리어 浮大하고 牢하는 者は 죽는다. | 74, 75 | | |
| | 59 | 奪血症에 脈이 實하면 難治이다. | 76 | | |
| | 59 | 吐血 衄血에 脈이 滑數하면 難治이다. | 77 | | |
| | 59 | 唾血에 脈이 小弱하면 살고 實大하면 죽는다. | 78, 79 | | |
| | 59 | 失血症에 脈이 大하고 數한 것은 逆證이다. | 80 | | |
| | 59 | 生地黃湯 ○蓄血證으로 脈이 沈細微하고 | 81 | | |
| | 61 | 潮熱이 없으면 輕하고 潮熱이 있으면 重하며 潮熱이 盛하면서 脈이 크면죽는다. | 82 | | |
| | 61 | 心肺의 脈이 부수어져서 피가 샘솟듯이 입과 코로 나오면 治療하지 못한다. | 83 | √ | 3 |
| 61 | 코피가 나와서 그치지 않고 脈이 大한 것을 逆證이라고 | 84 | | | |
| 61 | 침과 小便으로 피가 나오고 肉脫이 되며 脈이 작고 勁한 것을 逆證이라고 | 85 |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血 | 61 | 嘔血하고 가슴이 빠근하여 등까지 당기고 脈이 작고 빠른 것을 逆證이라고 | 86 | | |
| | 61 | 배가 부르고 血便이 나오며 脈이 大하면서 때때로 끊어지는 것을 逆證이라고 | 87 | | |
| | 61 | 가래와 小便으로 피가 섞여 나오고 肉脫이 되며 脈이 손가락끝에 들이받는 것을 逆證이라고 | 88 | | |
| | 61 | 모든 血이 보이는 證에 身熱이 나고 脈이 大하면 難治하니 | 89 | | |
| | 61 | 몸이 차고 脈이 靜한 症은 易治인데 | 90 | | |
| | 61 | 吐血하고 咳逆하며 上氣되며 脈이 삭하고熱이 있는데 눅지 못하면 죽는다. | 91 | | |
| | 62 | 血脫한 症은 顔色이 희고 칙칙하여 潤澤하지 않고 그 脈이 空虛하다. | 92 | | |
| | 62 | 安臥하여서 脈이 盛한 症을 脫血이라 한다. | 93 | | |
| | 62 | 六脈이 弦細하고 澁한데늘러보아서 空虛하면 顔色이 만드시 蒼白하고 칙칙하여 윤택하지 못한 것은 脫血이니 | 94 | | |
| | 62 | 三黃補血湯 ○六脈이 虛하고 芤하며 衄血 吐血하는 것을 다스린다. | 95 | | |
| | 64 | 吐血 …… 만일 脈이 緊하고 數하면 難治가 된다. | 96 | | |
| | 64 | 薄厥症 入門曰 어떤 사람이 평소에 아무런 病도 없었는데 갑자기 半斗의 피를 吐하는데 脈이 弦急하였다. | 97 | | |
| | 69 | 故로 便血이 된다. 二脈이 虛하고 澁한것이 이것이다. | 98 | | |
| 72 | 血暈은 모두가 失血이 過多함으로 인하여 虛하여 어지럽증이 일어나고 脈이 微 澁하니 | 99 | | | |
| 73 | 만약에 脈이 洪實하고痛이甚한 症은 | 100 | | | |
| 73 | 保命生地黃散 脈이 微하고몸이 涼하면 桂皮를 加한다. | 101 | | | |
| 夢 | 77 | 少陰症에 脈이 微細하고다만 자려고 하는데 | 102 | | |

18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夢 | 77 | 혹은 熱病에 땀을 낸 뒤에 脈이 沈細하고 | 103 | | |
| | 79 | 脈의 상태는 肝臟이 邪를 받은 症이니 心病이 아니다. | 104 | √ | 4 |
| | 79 | 兩手の 脈이 함께 緩하니 이것은 | 105 | | |
| | 79 | 밥을 잘 먹고 脈이 平함을 얻었는데 | 106 | | |
| 言語 | 86 | 말하지 못하고 渴해서 물만 마시고 脈이 數한데 | 107 | | |
| | 87 | 寸口脈이 微하고 澁한데 微한 症은 衛氣가 不足한 症이며 澁한 症은 榮氣가 없는 症이니 | 108 | | |
| | 87 | 心の 脈搏이 堅하고 長하면 반드시 痛症이 생기고 혀가 말려서 말하지 못한다. | 109 | √ | 5 |
| | 87 | ○ 心脈이 濡함이 甚하면 脈이 되고 手少陰의 別脈을 通理라고 하는데 | 110 | √ | 6 |
| | 87 | 眞氣가 虛弱하고 脈이 가늘며말이 게으른 것은 | 111 | | |
| 津液 | 90 | 尺이 澁하고 脈이 滑하면 땀이 많다. 註釋에 가로되 尺膚가 澁하고 尺脈이 滑함 | 112 | | |
| | 90 | 脈이 大하고 虛하고 浮하고 濡하면 땀이 난다. | 113 | | |
| | 90 | 汗脈은 浮虛하고 或은 澁하며 或은 濡, 軟, 散, 洪大하니 渴하여 飲함에 | 114 | | |
| | 90 | 男子 平人の 脈이 虛弱, 微細한 것은 자주 盜汗이 난다. | 115 | | |
| | 90 | 傷寒에 脈이 浮하고 遲하며 얼굴에 熱이 나면서 붉고 …… 脈이 遲한 것은 陽氣가 없는 것이니 | 116, 117 | | |
| | 95 | 傷寒에 脈이 浮洪하며 땀이 기름 같고 털이潤하며 喘息이 그치지 않은 症은 | 118 | | |
| | 96 | 半병어리가 되는데 脈이 洪大하므로 | 119 | | |
| 痰飲 | 99 | 胸中에 留飲이 있으면 短氣하고 渴하며 四肢歷節이 疼痛하고 脈이 沈細하다. | 120 | | |
| | 99 | 留飲症은 四肢歷節이 아프고 短氣하고 脈이 沈하니 | 121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99 | | 脈이 數하고 과롭고 眩暈하면 이것은 支陰이 胸中에 있는 때문이니 | 122 | | |
| 104 | | 支飲은 혈떡거리고 눕지 못하며 거기에 短氣를 兼한 症이니 그 脈이 平하다 | 123 | | |
| 104 | | 脈이雙으로 弦한 症은 寒飲이요 偏하게 弦한 症은 飲이다.○肺飲은 脈이 弦하지 않고다만 喘促하고 短氣하며 脈이 沈하고 弦한 症은 懸飲이니 內痛이 있고○脈이 浮하며 細滑한 症은 飲에 傷한 症이다.○脈이 偏弦한 症은 飲이 되고 或은 沈 弦 滑을 兼하며 或은 結하고 或은 伏한 症은痰飲이 關節에 的中된 症이다. | 124~129 | | |
| 104 | | 痰脈은 弦滑하다 하였고 ○三因에는 飲脈은 다 弦 微 沈 滑하다 하였으니 ○脈의 沈 弦 細 滑과 大小의 不均한 것이 다 痰飲症에 屬한다. ○滿脈은 調理만 虛費하는 것인데 …… 대개 痰이 阿膠처럼 굳어지면 脈道가 막히고 澁한 때문이다. | 130~134 | | |
| 104 | | 脈이 크고心下에 留飲이 있으면 등이 寒冷해서 물과 같다. | 135 | | |
| 105 | | 肌色이 如常하며 脈이 滑하여 고르지 못하고 定하지 못한 것이 그 特徵이다. | 136 | | |
| 106 | | 手足이 寒冷하여 癱痺하고 昏倒하며 脈이 沈細한 症이다. | 137 | | |
| 107 | | 半夏溫肺湯 …… 胃가 虛冷한 症이며 그 脈이 沈弦細遲하다 | 138 | | |
| 108 | | 脈이 浮하면 吐해야 한다. | 139 | | |
| 五臟六腑 | 114 | 脈이 잦으면病이 腑에 있고 더디면臟에 있으며 잦으면 몸이 덥고 더디면 몸이 차다. | 140, 141 | | |
| 肝臟 | 117 | 大腿가 부서지며 살이 빠지면 눈꺼풀이 꺼지고 眞藏脈이 나타나 | 142 | | |
| 心臟 | 120 | 배꼽위가 跳動하며脈이 弦하는데 이것이 모두 心臟이 傷한 所致 | 143 | | |
| | 120 | 안으로 아프고 어깨와 목이 당기면 한달만에 죽고 眞藏脈이 나타나면 | 144 | | |
| 脾臟 | 124 | 脾의 臟脈이 나타난 症이니 300일내에 죽는다 | 145 | | |
| 肺臟 | 127 | 그脈이 緊하고 浮하며 數하면 吐血한다 | 146 | | |
| | 127 | 濁唾와 涎沫이 나오고 寸口脈이 數한 것이 그 症勢이다 | 147 | | |
| | 127 | 가슴이 隱隱하게 아프며 脈이 滑數하면 肺癰이 된다 | 148 | | |

20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肺臟 | 127 | 만일 眞藏脈이 나타나면 死의 期日을 定한 것과 같으니 | 149 | | |
| 腎臟 | 130 | 動作이 빠르지 못하며 眞藏脈이 때때로 나타나면 | 150 | | |
| | 131 | 小便이 淸利하고 脈이 沈遲하면 冷氣가 腎으로 들어간다. | 151 | | |
| | 131 | 小便이 赤澁하고 脈이 沈數하면 熱氣가 命門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 152 | | |
| | 131 | 脈이 浮하고 洪하며 脈이 기름같고 숨을 헐떡거리며 | 153 | | |
| 胃 | 135 | 胃脈이 實하면 脈氣가 있고 胃脈이 虛하면 泄瀉한다. | 154, 155 | √ | 7, 8 |
| 胞 | 144 | 脈이 微하면 氣血이 俱虛하므로 | 156 | | |
| | 144 | 少陰脈이 微하면 精이 없고 遲하면 陰中이 차고 澁하면 月血이 不來하니 | 157 | √ | 9~11 |
| | 144 | 하루 數升 정도 下血하는데 脈이 急疾하면 죽고 遲하면 산다. | 158~161 | | |
| | 144 | 漏下가 멎지 않을 때 脈이 작고 虛滑하면 살고 크고 緊하고 實하고 數하면 죽는 | 162, 163 | | |
| | 144 | 脈이 오는데 거문고줄과 같으면 小腹이 아프고 月水가 不利하고 孔竅에 瘡이 | 164 | | |
| | 144 | 帶下의 脈은 마땅히 遲滑하여야 되는 법이니 浮虛하면 못쓴다. | 165, 166 | | |
| | 149 | 白帶下가 섞여 있으며 脈이 沈細 疾數하고 或은 沈弦 洪大하니 | 167 | | |
| | 152 | 帶下症에 脈이 浮하고 惡寒하고 漏下하면 難治이다 | 168 | | |
| | 155 | 그 脈은 沈하고 緊한데 이것은 寒氣가 血室에 들어가서 | 169 | | |
| 蟲 | 159 | 脈이 沈하고 浮하면 寸白蟲이요 | 170 | | |
| | 159 | 諸蟲의 脈이 沈하고 實하면 살고 虛하고 크면 죽는다. | 171, 172 | | |
| | 159 | 蟲脈이 宣當 沈弱하고 弦해야 하는데 도리어 洪大하면 곧 蛔蟲이 甚한 症을 | 173, 174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蟲 | 159 | 勞瘵의 脈이 數하거나 或은 濡하고 細한데다 潮汗과 咳血과 肉脫이 甚하면 | 175 | | |
| | 159 | 陰肛을 蟲蝕하는데 脈이 虛小한者は 살고 勳急한者 | 176, 177 | | |
| | 161 | 六脈이 다 細하면 蟲脈이 아니다. | 178 | | |
| 小便 | 169 | 少陰脈이 數하면 婦人은 陰中에 瘡이 나고 男子는 氣淋이 생긴다. | 179 | | |
| | 169 | 腎脈이 滑하고 實하면 癰瘡가 된다. | 180 | √ | 12, 13 |
| | 169 | 便血하면 芤하고 數하면赤黃하며 實脈이 癰閉함으로써 熱이 膀胱에 있다. | 181, 182 | | |
| | 169 | 淋脈이 盛大하고 實하면살고 虛細하고 濡하면 難治이다. | 183, 184 | | |
| | 169 | 癰病에 脈이 가늘면다스리기 어렵다. | 185 | | |
| | 169 | 淋病에 脈이 細하고 數하면해롭지 않고 | 186 | | |
| | 169 | 少陰脈이 濡하면 氣가 膀胱을 달으니 女人이 그러하면 陰中에 瘡이 나고 大하고 實하면났기가 쉬우며 虛하고 濡하면 難治다. | 187~189 | √ | 14~16 |
| | 170 | 여자의 房勞후 小便이 不通하고 脈이 沈細한데 猪腎半隻을 넣어 | 190 | | |
| | 172 | 兩手의 脈이 濡한 듯했으나 거듭 만져보니弦한지라 이것은 걱정으로 因해서 얻은 症이다. 濡은 血少 氣多한데서 온 症이요 弦은 飲이 있어서 그러한 症이니 | 191 | | |
| | 173 | 參朮飲 얼굴이 어원데다가 脈은 왼쪽은 좀 和하나 오른쪽이 濡했다. …… 轉脬가 되고 脈이 가늘고 氣가 弱하며 胎가 膀胱의 下口를 눌렀는데 | 192 | | |
| | 174 | 졸지에 吐逆하고 大小便이 不通하며 煩悶하고 四肢가 떨리며 脈이 없는데 …… 大便이 점점 通하고 脈이 和해지며 | 193 | | |
| | 177 | 猪脬湯 脈을 보니 虛가 甚하기에 峻補를 할 | 194 | | |
| 182 | 그 脈을 만져 보니 輕할 때엔 濡하고 重할 때엔 弦하며 얼굴이 여위고 | 195 | | | |
| 183 | 四炒固眞丹 小便이 黃濁하고脈이 脾部는 洪數하고 腎部는 微濡하고 | 196 | √ | 17 | |

22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小便 | 186 | 小便이 後竅로 나오며 六脈이 다 沈澁하므로 | 197 | √ | 18 |
| 大便 | 190 | 泄瀉가 脈이 緩하고 때로 작고結한 症은 살고 浮大하고 數한 症은 難治다 | 198, 199 | | |
| | 190 | 泄瀉에 脈이 洪大하면 逆이 된다. | 200 | | |
| | 190 | 泄瀉하고 脫血이 되며 脈이 實하면 難治다. | 201 | | |
| | 190 | 泄瀉脈이 沈한것으로 風에 傷하면 浮하고寒에 傷하면 沈細하고 暑에 傷하면 沈微하고 濕에 上하면 沈緩하다 | 202~206 | | |
| | 190 | 泄瀉脈이 원체로 沈한것인데 沈遲한 것은 寒이 侵入한 症이요 沈數한것은 火熱한 症이요沈虛한 것은 滑脫한 症이요 暑濕은 緩弱하니 夏月에 많이 있다 | 207~210 | | |
| | 190 | 膿血이 내리는데 脈이 沈小하며 留連하면 살고 數疾하고또 有熱한 症은 難治 | 211, 212 | | |
| | 190 | 下痢脈이 微弱하면서 數한 症은 스스로 나오려 하는 症이니 | 213 | | |
| | 190 | 下痢脈이 大하면 낫지 않는다 | 214 | | |
| | 190 | 下痢를 하루 十餘回를 하고 脈이 도리어 實하면 難治다 | 215 | | |
| | 190 | 下痢脈이 작고 가늘어야 하고 洪大하면안된다. | 216, 217 | | |
| | 190 | 下痢脈이 微小한症은 곧 낫는 症이요 크고 浮洪한症은 날을 期約하지 못한다. | 218, 219 | | |
| | 190 | 脈은 마땅히 滑大할것이요 浮하고 弦急하면 죽고 沈細한症은 害가 없다. | 220~222 | | |
| | 190 | 痢疾에 몸이 서늘하고 脈이 가늘면살고 몸이 熱하고 脈이 크면 難治다 | 223, 224 | | |
| | 190 | 下痢脈이 微小하면 結하고 浮洪하면 難治다 | 225, 226 | | |
| | 190 | 燥結한 脈이 沈伏한 法이니 熱結한 것은 沈數하고 虛結한 것은 沈遲하다고 疑心해서는 안된다. | 227, 228 | | |
| | 190 | 老人 虛人의 閉結에 脈이 雀啄하면 難治다. | 229 | | |
| | 191 | 몸이 차고 渴하지 않으며 脈이 微細하면서 더딘것은 다 寒症이다. | 230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大便 | 192 | 萬病五苓散……. 腹痛하지는 않고 배가 우는 것이 우뢰와 같고 脈이 細한 데 쓴다 | 231 | | |
| | 193 | 얼굴에 때가 끼고 脈이 虛하고 煩渴하고 自汗하는데 | 232 | | |
| | 194 | 小便이 赤澁하여 煩渴하고 脈이 數하니 | 233 | | |
| | 194 | 水穀이 消化되지 않고 脈이 微弱한데 | 234 | | |
| | 194 | 腸胃가 虛滑해서 禁하지 못하고 脈이 沈細한데 | 235 | | |
| | 196 | 防風芍藥湯 飧泄에 身熱하고 脈弦하며 腹痛하고 渴한데 쓴다 | 236 | | |
| | 196 | 痰泄에 脈이 沈滑하면 | 237 | | |
| | 196 | 泄瀉하면 痛이 減하고 脈이 弦하고 滑한데 | 238 | | |
| | 196 | 瀉하고 나면 곧 너그러워지고 脈이 가는 症인데 | 239 | | |
| | 198 | 氣가 썩어지지도 않고 脈이 微하고 嘔吐하는 것 等症은 寒泄에 屬하니 | 240 | | |
| | 199 | 漿水散 暴泄로 因하여 一身이 冷汗하고 脈이 沈弱하고 氣少하여 | 241 | | |
| | 199 | 朝眞丹 泄瀉가 그치지 않고 腸鳴 腹痛하고 手足厥冷하며 脈이 微弱한 데 쓴다 | 242 | | |
| | 199 | 下痢가 그치지 않고 脈이 沈遲하고 手足이 厥逆하며 | 243 | | |
| | 202 | 만일 惡寒하고 脈이 沈하고 혹은 허리가 아프고 臍下가 아파도 ……., 만일 惡寒하고 脈이 沈하며 血을 먼저 내리고 膿을 뒤에 내리면 | 244 | | |
| | 202 | 黃芩芍藥湯 下痢膿血하고 身熱 腹痛하며 脈이 洪數한 것을 다스린다 | 245 | | |
| | 206 | 五虛란 症은 脈이 細한 症, 皮膚가 차가운 症, 氣가 적은 症, 前後를 泄利하는 症, 飲食이 들어가지 않는 症 | 246 | | |
| | 207 | 이러한 症이 있으면 色이 赤白과 脈의 大小를 莫論하고 通利를 시키는 | 247 | | |
| | 210 | 久病에 몸이 차고 脈이 沈小한 데는 덩게 해주고 暴病에 몸이 뜨겁고 脈이 뜨며 洪한 症은 맑혀 주어야 한다. | 248, 249 | | |

24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백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大便 | 210 | 下痢에 脈이 도리어 滑한 症은 속에 반드시 除去해야 할 症이니 | 250 | | |
| | 210 | 脈이 弦한 症은 風을 除去해야 하니 | 251 | | |
| | 212 | 飧泄에 脈이 크고 手足이 차가우면 難治요 脈이 작고 手足이 溫하면 易治이다 | 252, 253 | | |
| | 212 | 渴하며 脈이 弱한 症과 脈이 잦고 微熱이 있으며 땀이 나는 症은 다 自愈한다. | 254 | | |
| | 212 | 下痢에 脈이 크면 難治다. | 255 | | |
| | 212 | 下痢가 생선의 골같은 症과 身熱하고 脈大한 症은 | 256 | | |
| | 212 | 下痢에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없으면 灸해야 되니 灸해서 따뜻하지 않고 脈이 돌아오지 않으며 도리어 숨을 헐떡거리면 難治다. | 257 | | |
| | 212 | 下痢에 脈이 끊어지고 手足이 厥冷한데 肱만에 脈이 돌아오고 手足이 溫하면 살고 脈이 돌아오지 않으면 難治다. | 258 | | |
| | 212 | 배가 울고 가득하며 四肢가 맑고 泄하며 脈이 크면 이것은 逆이니 | 259 | | |
| | 212 | 땀이 그치지 않으며 脈이 없고 自利를 금하지 못하며 몸이 熱하고 脈이 實한 症은 다 難治다. | 260 | | |
| | 212 | 泄瀉가 오래 그치지 않고 手足이 차며 脈이 虛脫하고 煩燥하며 腸국결하여 | 261 | | |
| | 212 | 痢疾의 難治症은 脈大 身熱 鴨屎 發渴 咳逆 五色 噤口 紅水 脣紅 手足冷 氣喘 等症 | 262 | | |
| | 213 | 脈이 浮하고 數하여 能食하고 大便을 하지 않으면 實한 症으로서 | 263 | | |
| | 213 | 脈이 沈하고 더디며 먹지 못하며 身體가 무겁고 大便이 硬塞한 症을 陰結 | 264 | | |
| | 213 | 老虛한 사람이 大便이 燥秘하고 脈이 浮한 症은 氣에 있으니 …… 脈이 沈한 症은 魄에 있으니 | 265, 266 | | |
| 頭 | 226 | 만약 頭痛 眼痛하고 脈이 急하고 短 濇하면 죽는다. | 1 | | |
| | 226 | ○頭痛에 脈이 浮滑하면 낫기 쉽고 短濇하면 낫지 않는다. | 2, 3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頭 | 226 | ○頭痛에 短澁하면 죽음이 곧 이르고 浮滑한 症은 風痰이니 다스리기 쉬운 | 4, 5 | | |
| | 226 | ○陽脈이 弦하면 頭痛을 의심할 바 없다. | 6 | √ | 1 |
| | 226 | ○肝脈이 濇하고 大하면 반드시 眩暈하니 豫防하여야 한다. | 7 | √ | 2 |
| | 226 | ○寸口脈中이 短한 症은 頭痛이 있는 까닭이다. | 8 | | |
| | 226 | ○寸口脈이 緊急하거나 혹은 浮하거나 短하고 혹은 弦한 症은 다 頭痛을 주관 | 9 | | |
| | 226 | ○頭痛에 陽이 弦하고 부하면 風이고 緊하면 寒이고 風熱은 洪數하며 濕症은 細堅하고 氣虛頭痛은 비록 弦하나 반드시 濡하고 痰厥은 滑하고 腎厥은 堅實하다. | 10~16 | | |
| | 226 | 眩暈의 張本이 되며 風은 浮하고 寒은 緊하고 濕은 細하며 暑는 虛하고 生涎은 弦하며 滑하다. 虛脈은 脈象이 없는 듯한 것이다. | 17~21 | | |
| | 226 | ○腎厥頭痛은 그 脈이 들면 弦하고 누르면 緊하다. | 22 | | |
| | 226 | ○頭痛에 左手脈이 數한 症은 熱이요 脈이 澁한 症은 死血이 있는 症이며 右手脈이 實한 症은 痰積이 있는 경우요 脈이 大한 症은 病이 오래된 까닭이다. | 23~26 | | |
| | 232 | 玉眞丸 …… 脈이 들면 弦하고 누르면 돌같이 堅한 症은 腎氣가 不足하여 | 27 | | |
| | 234 | 太陽頭痛은 風寒을 싫어하고 脈이 浮하고 緊하니 | 28 | | |
| | 234 | ○少陽頭痛은 寒熱이 往來하며 脈이 弦하고 細하니 | 29 | | |
| | 234 | ○陽明頭痛은 自汗하고 發熱하며 脈이 緩하고 길고 實하니 | 30 | | |
| | 234 | ○太陰頭痛은 반드시 痰이 있고 몸이 무겁고 脈이 沈하며 緩하니 | 31 | | |
| | 234 | ○少陰頭痛은 …… 발이 차갑고 氣가 逆하여 寒厥이 되며 脈이 沈하고 細하니 | 32 | | |
| | 234 | ○厥陰頭痛은 或은 痰沫을 吐하며 厥冷하고 脈이 浮하고 緩하니 | 33 | | |
| | 237 | 脈이 動하고 머리가 무겁고 痛하며 熱氣가 往來하는 症 | 34 | | |

26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面 | 240 | 面熱로 괴로와 하나 脈이 洪大하는힘이 있으면 | 35 | | |
| | 240 | 寸口脈이 微하고 澁할 때 微한 症은 衛氣가 衰 …… 澁한 症은 營血이 不足한 症 | 36 | | |
| | 242 | 加味消毒飲 …… 눈에 連하여 항아리 한쪽을 올려 놓은처럼 부었는데 그 脈이 洪大 | 37 | | |
| 眼 | 267 | 눈이 赤痛하고 脈이 實하며 大便이 秘한데 | 38 | | |
| 耳 | 281 | 귀가 먹고 脈이 크면 살고 沈細하면 難治이다. | 39, 40 | | |
| | 281 | 腎脈이 浮하고 盛하면 風이요 洪하고 實하면熱이요 細하고 澁하면 虛이다. | 41~43 | √ | 3~5 |
| | 281 | ○귀병에 腎이 虛하면 遲滿하다. 그 脈이 浮大하면 風이요 洪動하면 火賊이요 沈澁하면 氣凝이고 數하고 實하면 熱이 閉塞한 것이다. | 44~48 | | |
| 口舌 | 296 | 口舌에 瘡이 나는 것은 脈이 洪하며 疾하고 速한데 만약 脈이 虛하면 中氣 不足 | 49, 50 | | |
| 咽喉 | 323 | 반드시 下痢하며 脈이 微弱한데 古方에 腎傷寒이라 | 51 | | |
| 頸項 | 330 | 움직이면 微痛하고 脈이 弦數實하였다 | 52 | | |
| | 332 | 腎脈이 緩한 症이 甚하면 脊이 구부러진다. | 53 | √ | 6 |
| | 332 | 寸口脈이 손가락에 닿는 것이 促하고 上擊하면 肩背痛이라고 한다. | 54 | | |
| | 332 | ○脈이 大하면 心下에 留飲이 있으며 등이 寒冷하다. | 55 | | |
| | 332 | ○등에 惡寒이 甚한 者가 脈이 浮大하고 힘이 없으면이것은 陽이 虛한 | 56 | | |
| 背 | 333 | 가을의 脈이 太過하면 逆氣가 되고 신경질나게 背痛한다. | 57 | | |
| | 333 | 診脈을 하여보니 弦하고 삭한데 무겁게 누르니 豁大하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컸 | 58 | | |
| | 334 | 어느 사람이 등이 僵痺하고 발이 痙攣하며 脈이 沈弦하고 細한데 | 59 | | |
| 胸 | 335 | 陽脈은 微하고 陰脈이 弦하면 胸痺하고 疼痛한다. 陽脈이 微한 것은 病이 上焦에 있음을 알 수 있고 陰脈이 弦한 것은 胸痺와 心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60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胸 | 335 | 心腹痛에 沈細한脈이 보이는 것은 마땅하고 浮大한 脈은 마땅치 않다. | 61, 62 | | |
| | 335 | ○心腹痛에 脈이 沈細해야 하고 浮大하고 弦長한것은 忌한다. | 63, 64 | | |
| | 335 | ○心腹痛에 脈이 沈細한 것은 좋으나 浮大하고 弦長한 것은 死脈이다. | 65, 66 | | |
| | 335 | 胸痞에 脈이 滑하면 痰이 있고 結하고 弦하고 伏하면 역시 痞하고 澁脈은 氣가 劣한 症이다. | 67~69 | | |
| | 335 | ○心痛에 左手脈이 數하면 熱이 많고 澁하면 死血이 있다. 右手脈이 緊하고 實하면 痰積이고 脈이 大하면반드시 久病이다. 兩手の 脈이 堅實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면 可히 下할수 있다. 痛이 甚하면 脈이 반드시 伏하다. | 70~75 | | |
| | 335 | 心脈이 약간 急하면 痛하고 약간 大하면心痺하고 등이 牽引하여 疼痛하며 短하고 數하거나 或은 澁하면心痛이다 | 76~78 | √ | 7~9 |
| | 336 | 臍上이 跳動하며 그 脈이 弦하니 | 79 | | |
| | 336 | 痛이 甚하여 煩躁하고 脈이 洪大하니 | 80 | | |
| | 336 | 心痛에 脈이 澁한症은 死血이 있는 症 | 81 | | |
| | 342 | 痛이 甚하면 脈이 반드시 伏하니 | 82 | | |
| | 343 | 心痛에 脈이 堅實하고 大便을 하지 못하는 症은 | 83 | | |
| | 345 | 寒痞는 渴하지 않고 脈이 더디니 …… 熱痺는 煩渴하고 脈이 數하니 | 84, 85 | | |
| | 348 | 結胸에 脈이 浮大한 症을 下하면 안되니 | 86 | | |
| | 348 | 結胸症에 陰脈이 나타나고 陰症이면서 | 87 | | |
| 乳 | 353 | 瘡頂이 陷下하여 검은 눈과 같으며 脈이 弦洪한데 누르면 細小하게 | 88 | | |
| 腹 | 357 | 脈이 細小하고 緊急하면 刺痛하며 陰弦하면 腹痛하고 弦急하면 小腹이 痛하며 | 89~91 | √ | 10 |
| | 357 | 心腹痛에 숨을 쉬지 못하고 脈이 細小하며 더딘 症은 살고 크고 빠른 症은 難治이며 腹痛에 脈이 도리어 浮大하고 難治하다. | 92~94 | | |
| | 357 | 心腹痛에 脈이 沈細한 症은 좋고 浮大弦長한 症은 나쁘다 | 95, 96 | | |

28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 腹 | 357 | 寒氣가 厥陰의 脈에 머무르면 血이 滯하고 脈이 急한 | 97 | | | |
| | 357 | 脈이 弦한症은 溫散해야 한다 | 98 | | | |
| | 357 | 대개 腹痛에 脈이 滑한 症은 | 99 | | | |
| | 360 | 脈이 壯實한症과 또는 처음 腹痛이 發한 症은 | 100 | | | |
| | 361 | 脈이 弦하고 氣가 傷한 症은 …… 脈이 洪하고 金을 傷한 症은 …… 脈이 緩하고 水를 傷한 症은 …… 脈이 濡하고 血을 傷한 症은 …… 脈이 遲하고 火를 傷한 症은 | 101~105 | | | |
| 腰 | 365 | 눌러서 뼈에까지 이르러도 脈氣가 적은 症은 腰脊이 疼痛하고 몸에 痺氣가 있 | 106 | | | |
| | 365 | ○腰痛의 脈이 모두 沈弦한 것이니 沈弦하면서 緊한 症은 寒이요 沈弦하면서 浮한 症은 風이요 沈弦하면서 濡細한 것은 濕이요 沈弦하면서 實한 것은 挫閃 | 107~110 | | | |
| | 365 | 沈하고 弦하다. 沈한것은 滯가 되고 弦한것은 虛가 되며 滯한것은 瘀血이고 緩한 것은 濕이며 滑한 것 伏한 것은痰이 되고 大한 것은腎虛한 것이다. | 111~116 | | | |
| | 365 | 脈이 大한것은 腎虛腰痛이다. | 117 | | | |
| | 366 | 杜冲丸 …… 脈이 大하고 虛하며 疼痛이 그치지 않는데 | 118 | | | |
| | 366 | 脈이 滑한 것 伏한 것은 痰飲痛이다 | 119 | | | |
| | 368 | 熱을 보면 減하며 寒을 만나면 發하며 脈이 沈弦急한데 | 120 | | | |
| | 368 | ○脈이 緩하고 或은 沈하면 濕腰痛이다 | 121 | | | |
| | 脇 | 371 | 寸口脈이 弦한 症은 臑脇下가 拘急해서 疼痛하는 症이니 | 122 | | |
| | | 371 | 脈이 雙으로 弦한 症은 肝氣가 남음이 있고 兩脇이 作痛한다. | 123 | | |
| 371 | | 肝脈이 沈하고 急하며 浮해도 또한 上症과 같은 症이 나타난다. | 124 | √ | 11 | |
| 371 | | 肝脈이 搏하며 堅하고 길며色이 푸르지 않은 症은 墜墮한데 病든 症이요 | 125 | √ | 12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 脇 | 371 | 肝脈이 軟하고 散하며 그 색이 潤澤한 症은 溢飲이 있으니 | 126 | √ | 13 | |
| | 371 | 氣鬱하고 胸脇이 疼痛한데 그 脈이 沈澁하면 鬱로 다스려야 | 127 | | | |
| | 373 | 氣가 弱한 사람은 脇下가 잘 疼痛하고 脈이 弦細하니 | 128 | | | |
| | 373 | 症勢는 陽脈이 弦하고 陰脈이 澁한데 대개 여러 가지 香料와 薑桂의 屬을 쓰니 病이 더욱 甚해 …… 脈이 弦한 症은 痛이요 澁한 症은 腎邪가 남음이 있는 症 | 129 | √ | 14 | |
| 皮 | 375 | 脈이 浮하고 大한데 浮한 症은 風이 虛한 症이요 大한 症은 氣가 強한 症이며 | 130 | | | |
| | 375 | 斑疹의 脈은 陽은 浮하고 數하며 陰은 實하고 大하며 火가 盛하면 表이다. ……. | 131 | | | |
| | 375 | 上症의 脈은 沈과 伏이 많고 或은 細하고 散하며 或은 끊어지고 없는 수도 있다 | 132, 133 | √ | 15 | |
| | 375 | 發斑이란 症은 血이 皮膚에 흠어지는 症이므로 脈이 伏한다. | 134 | | | |
| | 375 | 脈이 浮하고 緩한 症은 濕에 …… 緊하고 浮한 症은 寒에 …… 澁하고 芤한 症은 死血 | 135, 136 | | | |
| | 375 | 여름의 脈은 心에 屬하니 夏脈이 太過하면 | 137 | | | |
| | 378 | 만일 陰脈이 나타나고 黑斑이 稠密하고 | 138 | √ | 16 | |
| | 肉 | 385 | 얼굴이 여위고 脈이 크며胸中에 氣가 많으면 難治 | 139 | | |
| 脈 | | 392 | 止代脈이 나타나면 灸甘草湯 人蔘黃芪湯을 …… 脈이 虛하고 軟하면 茯神湯 補氣湯 | 140, 141 | | |
| | | 392 | 灸甘草湯 傷寒의 脈이 結代하고 心이 動悸하는 症 | 142 | | |
| | | 392 | 人蔘黃芪湯 血脈이 通行케하고 雜病의 代脈을 다스린다 | 143 | | |
| | | 392 | 茯神湯 六脈이 虛軟하고 咳嗽하면 心臟이 아프며 | 144 | | |
| | | 392 | 補氣湯 氣虛하고 脈이 浮하고 軟하며 怔忡 無時한 等症 | 145 | | |

30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脈 | 392 | 甘草 脈이 結代하고 心이 動悸하는데 甘草灸 1兩 水 3升到 달여서 | 146 | | |
| | 393 | 石膏 脈이 數한것을 除去한다. 病은 물러갔으나 脈이 數한데 煎服 | 147 | | |
| 手 | 401 | 上行하여 脾를 치고 脈이 沈細한 것이다 | 148 | | |
| | 401 | 消痰茯苓丸 …… 痛處가 때때로 옮기고 脈이 沈細한데 쓴다 | 149 | | |
| | 402 | 四肢의 歷節이 疼痛하고 氣가 短하고 脈이 沈하며 오래되면 | 150 | | |
| 足 | 404 | 脚氣의 脈은 ……浮 弦은 風이 ……濡 弱은 濕이 ……遲 濡은 寒이 ……洪 數은 熱鬱한 症 | 151~154 | | |
| | 404 | 脈이 微 滑한 症은 虛한 症이오 牢 堅한 것은 實한 症이다. | 155, 156 | | |
| | 404 | 脚氣脈이 浮한 症은 風이…… 緊한 症은 寒이…… 緩細한 症은 濕이…… 洪數한 症은 熱 | 157~160 | | |
| | 404 | 沈하면서 弦한 症은 風이…… 沈하면서 緊한 症은 寒이…… 沈細한 症은 濕이…… 沈數한 症은 熱이 되는 | 161~164 | | |
| | 404 | 脾脈이 甚히 緩하면 痿厥이 된다. | 165 | √ | 17 |
| | 404 | 痿脈은 浮하고 大하다 痿를 覺을…… 脈이 虛하면 살고 緊急하고 빠르면 죽는다 | 166~168 | | |
| | 404 | 寒厥의 脈은 沈한 것이니 數하고 實하면 熱이 되는 것이다. | 169 | | |
| | 404 | 한 환자를 다스리는데 脚 膝 尻 臂이 모두 冷하나 脈이 沈數하고 힘이 있으니 | 170 | | |
| | 409 | 脈이 促短하고 數하며 嘔吐해서 그치지 않는 症은 죽는다 | 171 | | |
| | 409 | 上氣하고 脈이 數하고늡지 못하면 또한 죽는다 | 172 | | |
| | 409 | 脚氣에 脈이 浮大하고 緊結한 症은 가장 惡한 것…… 細하면서 結하여도 역시 惡脈 | 173, 174 | | |
| | 410 | 故로 痿病은 그 脈이 반드시 浮大하다 | 175 | | |
| | 413 | 診察하니 그 脈이 沈數하고 有力하였다 | 176 | | |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足 | 414 | 氣가急하며脈이 잠깐 컸다가 잠깐 적었다하는 症은 | 177 | | |
| 毛髮 | 418 | 脈이 弦하고 氣가 弱하며 皮毛가 焦枯한데 | 178 | | |
| | 418 | 毛髮이 脫落하여 1莖도 남지 않았는데 脈이 微弦하고 濡하니 | 179 | | |
| 前陰 | 422 | 滑한 脈을 모두 疝으로 看做하였다 | 180 | | |
| | 422 | ○ 心脈이 搏이 滑 急하면 心疝이 되고 肺脈이 沈搏하면 肺疝이 되고 腎脈과 肝脈이 大急沈하면 모두 疝이 된다. | 181~183 | √ | 18~20 |
| | 422 | 肝脈의 滑한 것이 甚하면 癥疝이 되고 心脈이 微하고 滑하면 心疝이 되고 腎 肝脈이 滑한것이 甚하면 癥瘕가 된다 | 184~186 | √ | 21~23 |
| | 422 | 腎脈이 甚히 크면陰痿가 된다. 脈이 急하면 疝瘕가 되니 小腹이 疼痛한다. | 187, 188 | √ | 24~26 |
| | 422 | 三陽이 急하면 瘕가 되고 三陰이 急하면 疝이 된 | 189, 190 | | |
| | 422 | 腎脈 肝脈 心脈이 다 小하고 急하며 鼓하지 않으면 모두 瘕가 되는 것이다 | 191 | √ | 27 |
| | 422 | 疝의 脈이 弦 急하면 積聚가 속에 있는…… 牢하고 急하면 살고 弱하고 急하면 죽고 沈 遲 浮 澁한 것은 疝 瘕…… 痛이 甚하면 或 伏하고 或 細하고 或 動한다 | 192~196 | | |
| | 422 | 寸口脈이 弦하고 緊해서 弦 緊이 서로 攻搏하면 寒疝이 되는 것이다. | 197 | | |
| | 422 | 婦人의 少陰脈이 滑하고 數한 것은 陰孔가운데 瘡이 난 것이요 少陰脈이 浮하고 動할경우 浮하면 虛가 되고 動하면 痛이 되며 婦人이면 陰이 脫下한다 | 198, 199 | √ | 28, 29 |
| | 422 | 疝瘕와 積聚의 脈이 弦急한 것은 살고 虛弱하고 작으면 難治다 | 200, 201 | | |
| | 424 | 그 脈이 甚히 沈緊하지 않고 滑大해서 힘이 없는 것이 | 202 | | |
| 後陰 | 431 | 還少丹 下部脈이 微細하고 陰痿不起하는 데 | 203 | √ | 30 |
| | 432 | 兩手脈이 가늘고 弱한데 斷定하기를 秋脈인데 | 204 | | |
| 後陰 | 441 | 蟲이 肛門을 먹는데 그 脈이 虛小하면 살고 緊急한症은 죽는다 | 205, 206 | | |

32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 後陰 | 441 | ○ 무릇 痔脈이 沈小하고 實한 症은 易治요 浮 洪하고 軟弱한 症은 難治다 | 207, 208 | | | |
| | 441 | ○ 便血하면 芫하다. 數하면 赤 黃하며 實脈이면 癥閉하니 熱이 膀胱에 있는 | 209~211 | | | |
| | 443 | 만일 脈이 洪大하면 四物湯에 黃連解毒湯을 合하여 | 212 | | | |
| 審病 | 470 | 形이 盛하고 脈이 細하고 少氣하여 숨쉬기가 거북하…… 形이 瘦하고 脈이 크고 | 1, 2 | | | |
| | 471 | 脈이 작고 弱하며 澁한것은 久病이요 脈이 滑하고 浮하고 疾한 것은 新病 | 3, 4 | | | |
| | 471 | 脈이 작아도 色이 빼앗기지 않으면…… 脈은 빼앗기지 않아도 色을 빼앗기면 | 5, 6 | | | |
| | 471 | 脈이 弱하나 滑한것은 胃氣가 있는 것이니 易治 | 7 | | | |
| | 471 | 脈이 實하고 堅한 症을 病이 더욱 甚 | 8 | | | |
| | 471 | 脈이 四時를 逆하는 症을 治療하지 못한다고 하니 | 9 | | | |
| | 472 | 脈이 잠깐 성기다가 잠깐 잦고 잠깐 더디고 잠깐 빠른 症은 四季(辰戌丑未)를 따라서 | 10 | | | |
| | 472 | 脈이 浮하고 洪하며 몸에 기름과 같은 涎이 나고 | 11 | | | |
| | 辨證 | 474 | 脈이 盛한 것, 皮가 熱한 것……. 脈이 細한 것, 皮가 寒한 것……. | 12, 13 | | |
| | | 474 | 그 脈이 堅하고 大한 故로 實하게 되니 | 14 | | |
| 476 | | 風은 脈을 浮하게 하고 寒은 脈을 急하게 하……. | 15, 16 | | | |
| 476 | | 脈이 實하면 血이 實하고 脈이 虛하면 血이 虛한 것 | 17 | | | |
| 476 | | 脈이 盛한데 血이 적은 것이 …… 脈이 적은데 血이 많은 것이 …… | 18 | | | |
| 478 | | 大熱病에 氣가 熱하고 脈이 滿한 것을 重實이라 하고 脈이 虛하고 氣가 虛하고 | 19, 20 | | | |
| 478 | | 脈의 虛實이란 滿한 것이 虛가 되고 緊하고 牢한 것이 實이 되며 | 21, 22 |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辨證 | 478 | 脈이 이르러서 從하는데 按하면 鼓動하지 않으니 …… 脈이 이르러서 按하면 鼓動이 甚하고 盛 …… 脈이 數한데 按하면 鼓動하지 않는 것 …… 다 찬데 按하면 脈氣가 손가락 밑에서 鼓擊하여 盛 …… | 23~26 | | |
| | 478 | 얼굴이 붉고 脈이 沈하며 微한 것은 …… 小便이 붉고 脈이 沈하고 滑한 症은 | 27, 28 | | |
| | 479 | 寸口脈은 微하고 濇한데 微衛氣가 運行하지 않는…… 濡-榮氣가 미치지 못한 것 | 29 | | |
| | 479 | 脈은 있는데 氣가 없는 症은 口厥…… 氣가 있는데 脈이 없는 症은 行尸 | 30 | | |
| | 481 | 熱病은 脈이 고요하다가 脈을 내면 脈이 盛하고 燥한 症이 一逆이요 | 31 | | |
| | 481 | 泄瀉에 脈이 洪大한 症이 二逆이요 | 32 | | |
| | 481 | 몸이 熱하고 脈이 偏하게 끊어지는 症이 三逆이요 | 33 | | |
| | 481 | 寒熱이 形을 變하고 脈이 堅搏한 症이 五逆 …… 몸이 熱하며 脈이 큰 症이 …… 四肢가 清泄하고 脈이 큰 症이 …… 衄血이 나오 | 34 | | |
| | 481 | 脈이 큰 症이 …… 脫形하고 脈이 작고 輕한 症이…… 身熱하고 脈이 작고 빠른 症이…… | 35~39 | | |
| | 481 | 血便이 나오며 脈이 크고 때로 끊어지는 症이…… 形肉이 脫落하고 脈이 搏한 症이…… 등을 牽引하고 脈이 작으며 빠른 症이…… 飧泄하며 脈이 끊어지는 것이 | 40~43 | | |
| 診脈 | 482 | 太陰이 있는 곳에 그 脈이 沈하고 少陰이 있는 곳에 그 脈이 鉤하며 厥陰이 있는 곳에 그 脈이 弦하고 太陽이 있는 곳에 그 脈이 크고 길며 陽明이 있는 곳에 그 脈이 短하고 濇하며 少陽이 있는 곳에 그 脈이 大하고 浮하니 | 44~49 | | |
| | 483 | 上部에 脈이 있고 下部에 脈이 없으면 …… 上部에 脈이 없고 下部에 脈이 있으면 | 50, 51 | √ | 1, 2 |
| | 484 | 傷寒脈이 結하고 代하여 心이 動하고 驚悸하는 것은 | 52 | | |
| | 485 | 寸口脈이 平해도 죽는 것은 生氣가 홀로 안에서 끊어진 症 | 53 | | |
| | 485 | 病이 熱하고 脈이 數한데 按해서 動하지 않는 것은 | 54 | | |
| | 485 | 患者가 혹 脈이 없는 것은 病處에 痛이 甚하여 脈이 반드시 潛伏하는 것이요 만일 痛症도 없이 脈이 오지 않는 것은 죽는 症 | 55, 56 | | |
| | 485 | 한 손만 脈이 없는 症을 …… 두 손에 다 脈이 없는 症을 | 57 | | |
| | 486 | 脈이란…… 길면 氣가 다스려진…… 짧으면 氣가 病든…… 數하면 心이 煩거…… 大하면 病이 더한…… 위가 盛하면 氣가 높고 아래가 盛하면 氣가 脹하며 大하면 氣가 衰하고 細하면 氣가 少하며 濇하면 心이 痛한 症이다. | 58~66 | | |

34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診脈 | 486 | 粗하고 大한 것은 陰이 不足하고 陽이 有餘한 症이니 熱中이 된다. | 67 | | |
| | 486 | 風熱에 脈이 靜하면 泄瀉하고 血이 脫하며 脈이 實하면 病이 안에 있고 脈이 虛하면 病이 밖에 있고 脈이 沈하고 堅하면 難治한 症이다. | 68~71 | | |
| | 486 | 寸口脈이 沈하고 堅한 것은 病이 가운데 있고 浮하고 盛한 것은 病이 밖에 있는 것이며 脈이 盛하고 滑하면서 堅한 것은 病이 밖에 있고 小하고 實하면서 堅한 것은 病이 안에 있다. | 72~75 | | |
| | 486 | 寸口脈이 微하면 陽이 亡하고 濡하면 血이 亡하며 緊하면 寒이 되고 浮하면 風이 되며 數하면 熱이 되고 動하면 痛이 된다. | 76~81 | | |
| | 486 | 風은 脈이 浮虛하고 寒은 堅牢하며 沈潛한 것은 水蓄이요 急弦한 것은 支飲이요 動하면 痛이 되고 數하면 熱煩한 法이다. | 82~86 | | |
| | 486 | 脈이 크고 堅한것은 血氣가 함께 實한 것이요 작은 것은 血氣가 함께 虛한 것이요 큰 것은 血氣가 함께 많은 것이요 細微한것도 血氣가 역시 함께 虛한 것 | 87~90 | | |
| | 486 | 寸口脈이 ……것은 陽氣가 微한 것이니 浮하되 無力한 것 ……것은 陰氣가 衰한 것이니 細하고 無力한 것 ……綿綿해서 漆絲와 같아서 때로 끊어지는 것은 血이 亡한…… | 91~93 | | |
| | 486 | 寸口脈이 微하고 濡한데 …… 衛氣가 不足한 것이요 …… 營血이 不足한 것이며 滑한 것은 血은 많은데 氣가 적고 濡한 것은 血이 적고 氣가 많은 것이다. | 94~96 | | |
| | 486 | 緊한 것은 傷寒으로…… 虛한 것은 傷濕로…… 濡한 것은 傷燥로…… 細하고 緩한 것은 傷濕으로…… 浮한 것은 風에…… 弱한 것은 火에 傷한 症이다. | 97~102 | | |
| | 487 | 一呼에 四動 以上하는 것은 死脈 | 103 | | |
| | 487 | 脈이 往來하지 않으면 죽는다. 肥人의 脈이 가늘고 작아서 실과 같으면서 끊어지려 하는 것은 …… 瘦人의 脈이 躁하면 …… 모든 浮脈이 뿌리가 없으면 죽는다. | 104~107 | | |
| | 487 | 脈이 四損하면 3日만에 죽으니……. | 108 | | |
| | 487 | 환자가 脈이 끊어지고 입이 벌어지며 발이 腫脹하면 五日만에 죽는다 | 109 | | |
| 用藥 | 491 | 그 脈이 緊하고 數하며 按하면 鼓動하지 않고 空虛하니 …… | 110 | | |
| | 491 | 그 脈이 沈하고 細한데 按하면 洪大하니 이것은 밖으로는 虛寒이 | 111 | | |
| 吐 | 501 | 上部에는 脈이 있고 下部에는 脈이 없으면 마땅히 吐해야 | 112 | √ | 3 |
| | 502 | 肥白하고 氣虛한 사람 脈이 虛軟하고 無力한 者는…… | 113 | | |
| 風 | 509 | 혹은 六脈이 浮滑하고 虛軟하는 等 症이 나타나면 | 114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風 | 512 | 中風의 脈이 큰 것은熱이 아니며 風脈이다 | 115 | | |
| | 512 | 寸口脈이 浮하고 緊한데 緊하면 寒이 되고 浮하면 虛가 되며 | 116 | | |
| | 512 | 中風에 입을 다물었는데 脈이 遲하고 浮하면 吉하고 急 實 大 數하면 …… | 117 | | |
| | 512 | 中風에 脈이 遲하고 浮하면 다스리는 것…… 大하고 數해서 極하면 다스리지 못…… | 118, 119 | | |
| | 512 | 中風에 脈이 浮하고 滑하며 兼하여 痰氣가 있으면서 或은 沈滑하면 風으로 다스리지 말 것이며 或浮 或沈하고 微하면서 虛한 것은 危殆함을 잘 부지하고…… | 120~122 | | |
| | 512 | 大法에 脈이 浮하고 遲하면 吉하고 疾하고 急하면 凶한 것이다. | 123, 124 | | |
| | 512 | 脈이 浮하고 遲하면 다스리기가 쉽고 大하고 數해서 極하면 죽는다 | 125, 126 | | |
| | 512 | 脈이 浮하고 大한것은 風이다. 脈이 浮하고 數하면 中風이다. | 127, 128 | | |
| | 512 | 表證이 있으면서 脈이 浮하고 風寒을 싫어하며 | 129 | | |
| | 512 | 小續命湯 무릇 中風에 六脈이 浮하고 緊하며 風氣가 盛하고 | 130 | | |
| | 516 | 中風으로 말하지 못하고 脈이 沈하고 口噤하는데 | 131 | | |
| | 516 | 中風에 脈이 沈하고口噤한 것은 | 132 | | |
| | 523 | 三生飲 卒中風에 痰塞하고 昏倒해서 人事를 不省하고 脈이 沈하고 熱이 없는 者 | 133 | | |
| | 537 | 瘧脈은 누르면 緊하기가 활중의 곧은 것과 같고 위 아래로 運行한다 | 134 | | |
| | 537 | 瘧脈은 다 伏하고 沈하며 弦하고 緊하다 | 135 | | |
| | 537 | 瘧脈은 弦直하고 或은 沈細한데 조금 脈을 내어 풀고자하면 ……弦緊한 것은 오히려 可하거나와 伏 緊한 것은 안된다. | 136, 137 | | |
| | 537 | 浮하고 無力한 것은 太陽……길고 有力한 것은 陽明……浮하고 弦小한 것은 少陽 | 138~140 | | |

36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風 | 537 | 무릇 脈脈이 비내리는 것과 같이 흐르고 흩어져서 손가락밖으로 나가는 것은 …… | 141 | | |
| | 537 | 몸이 쉬하고 手足도 쉬하고 脈이 沈細하면 | 142 | | |
| | 537 | 몸이 熱하고 咳嗽하고 痰이 나오고 脈이 活數하면 | 143 | | |
| | 540 | 寒熱이 傷寒과 비슷한데 단 脈이 沈遲弦細하고 | 144 | | |
| 寒 | 543 | 或은 傷寒에 風脈이 나타나고 또는 傷風에 寒脈이 나타나고 | 145, 146 | | |
| | 545 | 緊脈이 傷寒이 된다. 傷寒의 脈이 陰陽이 함께 盛하고 緊하고 濡하다. | 147, 148 | | |
| | 545 | 脈이 盛하고 몸이 찬 것은 傷寒에서 …… 弦하고 緊한 것이 寒脈이 된다 | 149, 150 | | |
| | 545 | 傷寒의 脈이 大 浮 數 動 滑하면 陽…… 沈 濡 弱 弦 微하면 陰인…… 陰病에 陽脈이 보이는 것은 살고 陽病에 陰脈이 보이는 것은 죽는다. | 151, 152 | | |
| | 545 | 熱病에는 脈이 浮하고 洪하는 것이 원칙인데 細하고 小하면 藥…… 功力만 허비 | 153, 154 | | |
| | 545 | 땀을 낸 뒤에는 脈이 靜하고 病이…… 喘하고 熱하고 脈이 亂하면 …… | 155, 156 | | |
| | 545 | 寒이 太陽을 傷-脈이 浮하고 濡한…… 傳變하면 脈狀을 이롭하기 어렵다. | 157 | | |
| | 545 | 陽明- 長…… 少陽- 弦…… 太陰- 遲 沈…… 少陰- 緊…… 厥陰 熱甚- 伏하고 厥冷 | 158~162 | | |
| | 545 | 表解하고 裏病은 남아 있으면 그 脈이 堅하고 實한것이다. | 163 | | |
| | 545 | 脈이 緊하고 濡한것은 寒이요 陽은 浮하고 滑하며 陰은 濡하고 弱하니 | 164 | √ | 4 |
| | 545 | 陽脈은 濡하고 弱하며 陰脈은 小하고 急하니 이것은 風寒이 아니요 즉 濕溫脈 | 165 | √ | 5 |
| | 543 | 陽脈은 浮하고 滑하며 陰脈은 濡하고 弱한 것인데 혹 風을 만나면 變해서 風溫 | 166 | √ | 6 |
| | 543 | 陽脈은 洪하고 數하며 陰脈은 實하고 大한 것인데 溫熱을 만나면 變해서 溫毒 | 167 | √ | 7 |
| 543 | 陽脉이 濡弱하고 陰脉이 弦緊하고 다시 濕氣를 만나면 變해서 濕溫이 된다. | 168 | √ | 8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43 | 熱에 病들기를 極하게 하면 가볍게 누르면 滑하고 무겁게 누르면 散하고 澁하다 | 169 | | |
| | 543 | 中寒에 緊하고 澁하며 陰陽이 함께 盛하면 法에는 脈이 없는 것인데 | 170 | | |
| | 543 | 傷寒의 熱病에 脈이 마땅히 洪 大해야 되는 것인데沈 細한 것은 扞한다. | 171, 172 | | |
| | 543 | 中寒의 脈은 虛하고 微細하다 | 173 | | |
| | 547 | 처음 病을 받을 때에 脈浮하고 無汗할 때 …… 脈緩하고 有汗할 때 | 174, 175 | | |
| | 547 | 發熱하고 惡寒하고 脈浮한 것은 | 176 | | |
| | 548 | 太陽傷風은 脈이 陽으로는 浮하고 陰으로는 弱하게 되니 | 177 | √ | 9 |
| | 548 | 脈이 浮緊하고 惡寒하고 發熱하며 身痛하고 脈이 나지 않으며 | 178 | | |
| | 548 | 脈이 浮緊한 것은 傷寒脈이니 …… 脈이 浮緩한 것은 傷風脈이 되니 | 179, 180 | | |
| | 548 | 脈이 微弱한 것은 陽이 없는 것 …… 熱多寒少하며 脈이 微하고 惡寒하면 | 181, 182 | | |
| | 548 | 表證이 그냥 있고 脈이 微하고 沈하면서…… 모두 있으면서 脈이 도리어 沈하고 | 181~184 | | |
| | 548 | 九味羌活湯 …… 骨節이 아프고 發熱 惡寒하며 脈이 없고 脈이 浮緊한데 | 185 | | |
| | 549 | 大靑龍湯 …… 傷風의 證候이고 脈이 浮緊한 것은 傷寒脈…… | 186 | | |
| | 549 | 傷寒의 證候이고 脈이 浮緩한 것은 傷風脈이 되니 …… | 187 | | |
| | 549 | 傷風에 寒脈이 나타나며 傷寒에 風脈이 나타나는 것을…… | 188 | | |
| | 549 | 桂婢各半湯 太陽病에 脈이 微하고몸이 가렵지 않은 症 | 189 | | |
| | 549 | 桂麻各半湯 太陽病에 脈이 가늘고몸이 가려운 症 | 190 | | |
| | 550 | 脈이 浮하고 數하며 먹기는 잘 하…… 脈이 沈하고 遲하여 먹지 못하고 | 191, 192 | | |

38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50 | 喘息하며 直視하는데 脈이 弦하면 살고 濇하면 죽는다 | 193, 194 | | |
| | 550 | 服用한 후에 脈이 弦하면 살고 濇하면 죽는다 | 195, 196 | | |
| | 550 | 다만 脈弦하면 살고 脈濇하면 죽으니 | 197, 198 | | |
| | 550 | 手足이 溫하며 脈이 洪數하고 謔語하는 症은 | 199 | | |
| | 550 | 發狂하고 어디로든지 달아나려 하며 脈이 虛數한데 | 200 | | |
| | 550 | 살이 실록거리며 떠는 症을 兼하고 脈이 代하기에 ……症이 그치고 脈이 和하고 | 201 | | |
| | 550 | 汗을 다스린 뒤에 脈이 洪大하고 煩渴한 것 | 202 | | |
| | 550 | 大渴하고 脈이 洪大한 症 | 203 | | |
| | 550 | 홀리지 않고 脈이 浮한 症은 | 204 | | |
| | 551 | 上焦가 熱하면 脈이 浮하고 發熱하며 | 205 | | |
| | 551 | 白虎湯 陽明病에 脈이 많고 煩渴하며 脈이 洪大한데 | 206 | | |
| | 551 | 猪苓湯 陽明症에 小便이 不利하며 脈이 적고 脈이 浮하고 渴한 症 | 207 | | |
| | 552 | 傷寒의 脈이 弦細하며 頭痛하고 發熱하는 症 | 208 | | |
| | 552 | 일찌기 吐下하지 않았는데 脈이 沈緊한 症 | 209 | | |
| | 552 | 술이 푸르고 手足이 冷하며 脈이 沈細하면 | 210 | | |
| | 553 | 傷寒에는 陽脈이 濇하고 陰脈은 弦한 症 | 211 | √ | 10 |
| | 554 | 少陰이 病들면 脈이 微細하고 다만 자려고 | 212 | | |
| | 554 | 도리어 發熱하고 脈이 沈하면…… 手足이 차며 骨節이 아리고 脈이 沈하면…… | 213, 214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54 | 下痢하고 脈이 沈遲하며 얼굴이 조금 붉고 | 215 | | |
| | 554 | 下痢하고 脈이 끊어지거나 或은 脈이 없으면…… 手足이 厥逆하며 脈이 작고 끊어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고 脈이 가늘어서 끊어지고자 하는 症…… | 216~218 | | |
| | 554 | 下痢하고 脈이 가늘어서 …… 厥逆하며 脈이 없고 乾嘔逆하고 煩悶하면 …… 脈이 暴出하면 죽고 조금씩 계속하면 사는 것이다. | 219, 220 | | |
| | 555 | 厥冷하고 脈이 가늘어서 끊어질듯하고 或은 脈이 伏하니 | 221 | | |
| | 555 | 旬月後에 發하면 脈이 다시 微弱하며 | 222 | | |
| | 555 | 少陰病에 脈이 沈細數하면 | 223 | | |
| | 555 | 麻黃附子細辛湯 少陰病에 다만 자려고하고 發熱하며 脈이 沈한 症 | 224 | | |
| | 555 | 附子湯 少陰病에 脈이 沈하고 手足이 차며 | 225 | | |
| | 556 | 四逆湯 傷寒陰症의 要藥이며 또 三陰에 脈이 더디고몸이 아픈데 | 226 | √ | 11 |
| | 556 | 通脈四逆湯 …… 厥冷하며 脈이 가늘어서 끊어질 것같거나 或은 脈이 없는 症 | 227 | | |
| | 556 | 白通湯 少陰病에 下痢하고 脈이 나는 症을 | 228 | | |
| | 557 | 厥陰에 傳하여 脈이 微緩하고 微浮한 것은 | 229 | | |
| | 558 | 囊이 오므라지며 脈이 가늘어서 끊어질 듯하는 症 | 230 | | |
| | 558 | 當歸四逆湯 厥陰症에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가늘어서 끊어질 듯한 症 | 231 | | |
| | 558 | …… 만약 脈이 크면 症勢와 더불어 …… 脈이 도리어 가늘어서 症勢와 더불어 | 232 | | |
| | 558 | 陽症이 陰과 비슷한 것은 大便이 검고 脈이 滑하다. | 233 | | |
| | 558 | 陽症으로 身熱 頭痛하고 脈이 浮數하면 | 234 | | |

40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58 | 만일 무겁게 눌러서 無力하거나 或은 脈이 없으면 …… 만약 脈이 有力한 症은 | 235 | | |
| | 558 | 陰證이 陽證과 비슷한 症은 얼굴이 붉고 脈이 가늘다 | 236 | | |
| | 559 | 身體가 疼痛하고 脈이 浮한 症은 | 237 | | |
| | 560 | 麻黃杏仁飲 …… 頭痛하며 脈이 없으면서 脈이 浮하고 緊한 症 | 238 | | |
| | 562 | 發熱하고 脈이 弦細하고 頭痛하는 症 | 239 | | |
| | 562 | 가령 脈이 浮하고 大하면 …… 大便이 硬하며 脈이 沈數하면 …… 表는 或은 脈浮하고 或은 頭痛하며 …… 厥逆하고 脈이 滑하면 裏에 熱이 있는 症 | 240~243 | | |
| | 562 | 身體가 疼痛하는데 있어 脈浮하고 發熱하고 …… 脈沈하고 自利하고 | 244, 245 | | |
| | 563 | 四肢가 逆冷하고 脈이 沈微하면서 數하지 않고 | 246 | | |
| | 563 | 四肢가 厥冷하고 脈이 沈遲해서 누르면 힘이 없는 症 | 247 | | |
| | 563 | 그 脈이 비록 伏하였으나 누르면 滑한 症 | 248 | | |
| | 563 | 대개 熱厥에 脈이 沈伏하고 滑한 症은 | 249 | | |
| | 563 | 爪甲이 푸르고 脈이 沈疾한데 눌러서 힘이 있으면 | 250 | | |
| | 563 | 熱厥에 脈이 沈伏하며 滑하고 頭上에 脈이 있고 | 251 | | |
| | 564 | 陰陽의 二厥은 脈이 다 沈…… 陰厥은 脈이 沈遲弱…… 陽厥은 脈이 沈伏滑 | 252, 253 | | |
| | 564 | 7-8일만에 脈이 微하고 皮膚가 冷하고 | 254 | | |
| | 565 | 外腎이 얼음처럼 차며 脈이 빠에 붙어서 取하면 있으나 약간 누르면 없으니 | 255 | | |
| | 565 | 얼굴이 검푸르고 六脈이 沈細하여 一息에 七至하니 | 256 | | |
| | 565 | 六脈을 빠에 붙어서 取하면 있으나 약간 누르면 없고 一息에 八至以上이 되고 或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노니 | 257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65 | 그 脈이 드디어 沈하나 滑하여 證은 비록 陰이나 陽脈이 있으므로 | 258 | | |
| | 565 | 返陰丹 陰毒에 脈이 伏한 症과 陽이 脫하여 脈이 없는 것 | 259 | | |
| | 566 | 復陰丹 陰毒에 얼굴이 푸르고 四肢가 차고 脈이 沈한 症 | 260 | | |
| | 566 | 回陽救急湯 傷寒의 陰症과 陰毒에 四肢가 厥冷하고 脈이 沈細하고 | 261 | | |
| | 566 | 熨臍法 陰毒이 危急하고 몸이 차며 脈이 없고 氣息이 끊어지려 하고 | 262 | | |
| | 566 | 下痢하며 六脈이 洪大하는 症을 陽毒發斑이라 | 263 | | |
| | 566 | 六脈이 洪大하고 有力하며 燥渴하는데 | 264 | | |
| | 566 | 黑奴丸 陽毒에 發斑하고 煩躁하고 大渴하며 脈이 洪數한 症 | 265 | | |
| | 567 | 三黃石膏湯 …… 달음질치고 헛소리를 치며 六脈이 洪大한 症 | 266 | | |
| | 567 | 陽毒升麻湯 …… 狂言하며 或은 鬼神이 보이고 脈이 浮大數한 症 | 267 | | |
| | 567 | 大便이 自利하고 검으며 六脈이 沈하고 細하면서 빠르고 或은 없기도한다 | 268 | | |
| | 567 | 病人이 몸이 冷하고 脈이 沈細하면서 빠르고煩躁하면서 | 269 | | |
| | 567 | 몸이 熱하나 脈이 鼓擊하지 않으며 或은…… | 270 | | |
| | 567 | 傷寒에 六脈이 沈伏하며 보이지 않고 깊이 눌러서 뼈에 이르면 힘이 있는 것 | 271 | | |
| | 568 | 體가 厥冷하고 脈이 滑數하여 누르면 손가락 밑에서 鼓擊하니 | 272 | | |
| | 568 | 脈이 數하고 몸이 도리어 모두 차면 | 273 | | |
| | 568 | 양치만하고 삼키지 않으며 脈이 반드시 沈細하고 힘이 없으니 | 274 | | |
| | 568 | 氣色이 光潤하며 脈이 반드시 沈滑하고 힘이 있으니 | 275 | | |

42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68 | 病人의 脈이 가늘고 澁한 症은 亡血로 | 276 | | |
| | 568 | 脈이 浮하고 緊하고 …… 脈이 浮하고 數하고 …… 脈이 浮하고 澁하며 …… 脈이 浮하고 滑하며 …… 脈이 浮하고 弦하며 …… | 277~281 | | |
| | 568 | 少陰病에 下痢하고 脈이 沈하고 遲하며 | 282 | | |
| | 568 | 傷寒 6-7일에 만약 脈이 和平하고 煩燥가 甚하고 | 283 | | |
| | 568 | 傷寒에 脈이 浮하고 自汗이 나며 | 284 | | |
| | 568 | 脈이 結하고 代하며 心이 動悸한 症 | 285 | | |
| | 574 | …… 脈이 浮한 症은 …… 脈이 洪한 症 …… | 286, 287 | | |
| | 574 | 脈이 浮하고 渴하는 症은 太陽에 | 288 | | |
| | 574 | 약간 혈떡거리고 直視하는데 脈이 弦하면 살고 濡하면 難治다 | 289 | | |
| | 575 | 發狂에 陽症에 陽脈이 보이는 症은 …… 陰症에 陰脈이 보이고 …… | 290, 291 | | |
| | 575 | 手足이 冷하며 脈이 細微하면 …… 手足이 溫하며 脈이 洪數하면 | 292, 293 | | |
| | 576 | 傷寒에 脈이 浮하고 緊한데 …… 大便이 實하고 脈이 沈實하며 有力하면 …… 누르면 아프고 脈이 浮滑하니 …… | 284~286 | | |
| | 578 | 表症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脈이 微하고 沈한데 | 287 | | |
| | 578 | 脈이 없거나 或은 微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脈이 浮하고 緊하며 몸이 疼痛하고 …… 만약 脈이 微하여 脈을 내지 못하면 | 288, 289 | | |
| | 578 | 太陽病에 脈이 浮하고 緊하며 發熱하고 | 290 | | |
| | 579 | 몸이 아프고 脈이 沈하며 大便이 自利하고 …… 몸이 熱하며 脈이 芤고 煩渴하여 | 291, 292 | | |
| | 580 | 다시 熱하며 脈이 躁하고 疾한데 | 293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80 | 땀이 나고 脈이 오히려 躁 盛한 症은 …… 發汗한 뒤에 脈이 躁하고 疾하며 | 294, 295 | | |
| | 581 | 身形이 비록 和하나 脈이 약간 微數하니 | 296 | | |
| | 584 | 만약 熱이 除하고 脈이 더디며몸이 서늘하고 | 297 | | |
| | 585 | 傷寒에 兩手が 다 脈이 없는 症 …… 一手に 脈이 없는 症을 | 298, 299 | | |
| | 585 | 人事를 不省하고 脈이 고요하거나 或은 脈이 없는 症 | 300 | | |
| | 585 | 喘促하고 脈이 없는 症은 …… 陰이 躁하고 脈이 없는 症은 …… 下痢하고 脈이 이르지 않는 症은 …… 脈이 멎힌 症은 …… 兩手に 脈이 없는 症 | 301~305 | | |
| | 585 | 脈이 따라서 돌아오면 살고 服藥해도 여전히 땀이 없고 脈이 돌아오지 않으면…… | 306, 307 | | |
| | 585 | 五味子湯 傷寒에 喘促하며 脈이 伏하고 厥하는 症 | 308 | | |
| | 585 | 熱이 풀리지 않고 脈이 아직 浮한 症 | 309 | | |
| | 587 | 脈이 浮한 症은 마땅히 發汗을 해야 하며 …… 裏 症이 있고 脈이 沈한 症은 下해야 | 310, 311 | | |
| | 587 | 脈이 浮하고 數하면서 微하고 몸이 溫和한 症 …… 脈이 浮해서 풀리는 症은 축축하게 땀이 나고 풀리면 잘 먹는데 脈이 浮하지 않고 풀리는 症은 반드시 大汗이 | 312, 313 | | |
| | 587 | 6-7일만에 脈이 이르는 症 | 314 | | |
| | 587 | 脈이 浮한 故로 땀이 나고 풀려지는…… 脈이 平和하면서 크게 煩하고…… 脈이 浮하고 數하면서 微하고 몸이 溫和 | 315~317 | | |
| | 587 | 脈이 浮하고 또 緊한데 누르면 도리어 芤하는 症은 …… 脈이 浮하고 數한데 눌러서 芤하지 않는 症은 | 318, 319 | | |
| | 587 | 그 脈이 微하니 이것은 일찌기 發汗을 지나서 | 320 | | |
| | 588 | 傷寒에 寸口脈이 浮하고 緊할 때에 | 321 | | |
| | 588 | 脈이 뜨지 않으면 땀내지 못하고 脈이 微弱하고 或은 尺脈이 더디면 …… | 322, 323 | | |
| 588 | 脈이 急緊하며 곧게보고 눈을 감지 못하며 | 324 | | | |

44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89 | 脈이 마땅히 浮하고 緊한 症인데 도리어 浮하고 遲하면 遲한 症은 亡陽이 된 症 | 325, 326 | | |
| | 589 | 太陽病에 脈이 浮하고 緊하며 몸이 疼痛하면 ……가령 尺脈이 더디면 …… 안되는 症 | 327 | | |
| | 590 | 謔語하고 脈이 沈하면서 滑한 症 | 328 | | |
| | 590 | 반드시 脈이 浮하고 頭痛하며 惡風 惡寒하는 | 329 | | |
| | 590 | 만약 脈이 浮緊한데 쓰면 반드시 結胸이 되고 ……脈이 緩한데 쓰면 반드시 痞氣 | 330, 331 | | |
| | 590 | 脈浮,虛症,惡寒症,嘔吐하는 症과 轉矢氣症이 없는 症 ……脈이 沈實하지 않은 症 | 332, 333 | | |
| | 590 | 눈이 붉고 煩渴하며 脈이 7·8至하는데 …… | 334 | | |
| | 590 | 脈이 微하며 氣가 虛하고 힘이 弱하면 | 335 | | |
| | 591 | 몸이 濡하고 脈이 微하며 | 336 | | |
| | 591 | 脈의 陰陽이 함께 虛하고 熱이 그치지 않는 症은 …… 脈의 陰陽이 함께 盛하고 | 337, 338 | | |
| | 591 | 下痢한 뒤에 脈이 끊어지고手足이 厥冷하다가 간혹 脈이 돌아와서手足이 溫하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으며 | 339, 340 | | |
| | 591 | 다시 熱하고 脈이 煩躁 …… 厥逆하며 脈이 없는데 灸해도 脈이 돌아오지 않고 | 341, 342 | | |
| | 591 | 熱病에 脈이 躁하고 盛하면서 땀이 나지 않는 症 | 343 | | |
| | 591 | 문득 昏昧하고 脈이 없으면서 藥을 먹은 뒤에 땀이 나고 和解하면 살며 땀이 없고 脈이 이르지 않는 症은 죽으며 | 344 | | |
| | 591 | 傷寒에 脈이 잠깐 잦고 잠깐 성근 症은 不治요 脈이 大한 症은 不治며 | 345, 346 | | |
| | 592 | 厥逆하고 脈이 없으며 陰囊이 오므라지니 | 347 | | |
| | 592 | 만일 脈이 돌아오지 않고 手足이 따스하지 않으면 | 348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寒 | 593 | 葱熨法 中寒에 몸이 춥하고 脈이 가늘고 얼굴이 靑黑한 症 | 349 | | |
| | 594 | 防風冲和湯 …… 頭痛하고 身熱하며 自汗하고 惡寒하며 脈이 浮緩한 症 | 350 | | |
| | 594 | 몸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脈이 浮虛해서 힘이 없는 症 | 351 | | |
| | 595 | 六脈이 虛하고 微하여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352 | | |
| | 596 | 金液丹 久寒과 痲冷 및 吐利를 오래하여 몸이 차고 脈이 微한데 | 353 | | |
| | 596 | 至聖來復丹 …… 臟腑가 虛滑한 症과 霍亂 吐瀉와 脈이 가늘어서 끊어지려 하는 | 354 | | |
| | 596 | 中風의 脈은 陽이 浮하고 滑하며 陰이 濡하고 弱하다. 濕溫의 脈은 陽이 濡하고 弱하며 陰은 적고 急하다. 傷寒의 脈은 陰陽이 함께 盛하고 緊하며 濡하다. 熱病의 脈은 陰陽이 함께 浮한데 浮하면서 滑하고 沈하면서 散濇하다. | 355~358 | √ | 12 |
| | 596 | 陰厥에 脈이 沈하고 細한 것은 …… 陽厥에 脈이 滑하고 沈한 症은 …… | 359, 360 | | |
| | 596 | 脈이 더디며 熱이 많고 寒이 적고 血이 弱한 것 | 361 | | |
| | 596 | 數症이 있으니 動氣와 風濕과 脈이 虛한것이요 | 362 | | |
| | 596 | 陽明이 少陽으로 더붙어 病을 습하고 脈이 弦한 症 | 363 | | |
| | 598 | 石膏 傷寒 熱病에 汗後의 脈이 洪大한 症과 頭痛하고 | 364 | | |
| | 598 | 硫黃 傷寒의 陰症에 몸이 차고 脈이 가늘며 手足이 厥하고 | 365 | | |
| | 暑 | 600 | 暑에 傷한 脈은 虛하다 脈이 虛하고 몸이 熱한 症은 ……暑가 氣를 傷하면 脈이 虛弦細 孔遲하고 …… 中濕한 脈은 陽은 弱하고 陰은 虛하여 微하고 濡하여서 淸한 것과 같다… 弦細 孔遲한 症은 다 虛脈이나 暑脈은 虛하고 微弱하며 或은 浮大하고 滑어지며 或은 숨어서 보이지 않으니 …… 熱病은 脈이 盛하고 中濕은 脈이 虛한 것으로써 區分하면 된다 | 366~373 | √ |
| 601 | | 中濕의 症勢는 六脈이 沈伏하고 冷汗이 스스로 흐르며 | 374 | | |
| 601 | | 그 脈이 弦細孔遲하고 小便하고 나면 | 375 | | |
| 601 | | 脈이 虛하고 微弱하며 煩渴하여 引飲하며 | 376 | | |
| 601 | | 中熱이니 脈이 洪하고 緊盛하며 頭痛이 나고 | 377 | | |

46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濕 | 602 | 清氣飲(一名 清暑益元湯) …… 氣力이 없고 脈이 虛細하고 遲한 것은 | 378 | | |
| | 602 | 黃芪湯 中喝에 脈이 虛弱한 症 | 379 | | |
| | 603 | 咳嗽하며 寒熱을 發하며 盜汗이 그치지 않고 脈이 잦은 것 | 380 | | |
| | 606 | 參歸益元湯……. 조을기를 좋아하고 飲食이 減少하며 脈이 잦고 힘이 없는 症 | 381 | | |
| | 608 | 濕에 傷한 脈은 細하고 濡하다 濕熱의 脈은 緩하고 大하다 | 382, 383 | | |
| | 608 | 或澁하고 或細하고 或濡하고 或緩한 것은 모두 中濕으로 因한…… 脈이 浮하고 緩한 것은 濕이 表에…… 沈하고 緩한 것은 濕이 裏에 있다 | 384~386 | | |
| | 608 | 脈이 弦하면서 緩하고 或은 緩하면서 浮한 症은 다 風濕이 서로 攻搏한 症이다 | 387 | | |
| | 608 | 身痛하고 脈이 沈한 症은 中濕이요 脈이 浮한 症은 風濕이 된다 | 388, 389 | | |
| | 608 | 寸口陰脈이 緊한 것은 霧露의 濁邪가…… 寸口陽脈이 緊하고 혹 濡을 띤 症은…… | 390, 391 | √ | 14, 15 |
| | 608 | 陰陽脈이 함께 緊한 것은 上下 二焦가 ……吐利한 뒤에 脈이 緊하지 않고 …… | 392 | | |
| | 608 | 濕溫의 脈이 陽은 濡하고 弱하며 陰은 小하고 急하다 | 393 | √ | 16 |
| | 609 | 中濕의 脈은 이것은 沈하면서 微緩한데 | 394 | | |
| | 609 | 땀이 나고 몸이 차고 脈이 沈微하고 短氣하며 | 395 | | |
| | 611 | 濕溫을 發하고 그 脈이 陽은 濡하고 弱하며 陰은 小하고 急하니 | 396 | √ | 17 |
| 611 | 人事不省하고 六脈이 다 작고 弱하면서 急하니 | 397 | | | |
| 燥 | 614 | 收斂을 主張하니 그 脈이 緊澁한故로 | 398 | | |
| | 614 | 燥에 傷하면 脈이 濡한다. 脈이 緊하고 澁하며 或은 浮 弦하고 或은 芤 虛한것 | 399, 400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火 | 616 | 火脈은 洪數한 法인데 虛하면 浮한다. 脈이 實하고 數한 것은 實熱이 있는 症이다. 脈이 浮하고 洪數하면 虛火가 있는 것이요 脈이 沈하고 實하면 實火다. | 401~405 | | |
| | 616 | 骨蒸과 勞熱의 脈은 數하고 虛하며 熱하고 澁하고 小하니…… | 406 | | |
| | 616 | 虛火는 浮數하고 實火는 沈大한 것이니 …… 다스리는데 細數하면 해롭다 | 407~409 | | |
| | 617 | 人蔘地骨皮散 ……을 다스리니 脈을 누르면 不足하고 들면 有餘한데 | 410 | | |
| | 617 | 脈이 洪盛하고 有力한 것이 卽 그 症…… 脈이 虛弱하고 無力한 것이 卽 그 症…… | 411, 412 | | |
| | 617 | 脈이 實하고 數한것은 實熱이다 | 413 | | |
| | 622 | 흰 가래를 뱉고 말을 함부로 하고 脈의 緩急이 고르지 못하며 | 414 | | |
| | 623 | 얼굴이 검고 脈이 躁하며 直視하고 …… | 415 | | |
| | 623 | 五蒸湯 骨蒸으로 潮熱하고 脈이 잦고입이 마르고 | 416 | | |
| | 625 | 夏脈은 心인데 不及하면 心이 煩한다 | 417 | | |
| | 625 | 몸이 痛하지 않고 脈이 緊數하지 않는것 | 418 | | |
| | 626 | 泄瀉가 그치지 않고 脈이 가로 놓인 노끈과 같고 힘이 있었다 | 419 | | |
| | 627 | 환자가 脈이 微하고 澁한 症은 …… 또 陰脈이 遲澁한 故로 …… | 420 | √ | 18 |
| | 627 | 血이 凝澁하면 脈이 通하지 않고 脈이 盛하고 大하면 澁한故로 中寒한 것이다. | 421 | | |
| | 628 | 當歸補血湯 …… 面紅하고 脈이 洪大하면서 虛하고 무겁게 누르면 전연 없는 것 | 422 | | |
| | 628 | 脈이 澁하면 반드시 물로 양치만 하는 症 | 423 | | |
| 629 | 補陰瀉火湯 …… 潮熱하며 盜汗하고 痰嗽하고 咯血하면서 脈이 數沈하고 | 424 | | | |

48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火 | 631 | 大熱이 있고 脈이 洪大한 症 | 425 | | |
| 內傷 | 635 | ○寸口脈이 弱하고 遲한 경우, 弱 - 衛氣가 微한 症이요 遲 - 榮이 寒한 症 | 426 | | |
| | 635 | ○寸口脈이 弱하고 緩한 경우, 弱 - 陽氣가 不足…… 緩 - 衛氣가 有餘 | 427 | | |
| | 635 | ○寸口脈이 緊하면 胸中에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다. | 428 | | |
| | 635 | ○脈이 緊해서 새끼를 꼬는것같고 일정하지 않는 것은 宿食이 있다. | 429 | | |
| | 635 | ○陽脈은 滑하고 緊한 경우, 滑 - 胃氣가 實…… 緊 - 脾氣가 傷 | 430 | √ | 19 |
| | 635 | ○脈이 浮滑하고 빠른것은 飲食이 消化되지 않고 脾가 갈지 못한다 | 431 | | |
| | 635 | ○氣口가 緊盛하면 飲食에 傷한 症이니 飲食이 소화되지 않으면 浮滑하고 疾 | 432 | | |
| | 635 | ○勞役으로 內傷한 症은 脈이 豁大함…… 飲食으로 內傷한 症은 脈이 滑 疾 浮 沈 | 433, 434 | | |
| | 636 | 傷食의 證은 氣口脈이 반드시 緊盛하고 | 435 | | |
| | 645 | 氣口脈이 홀로 盛하고 緊하며 | 436 | | |
| | 647 | 脈이 작고 차면 먹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 437 | | |
| | 650 | 當歸補血湯 …… 물을 쪼고 그 脈이 洪大하고 虛하며, 무겁게 누르면 全然없으니 | 438 | | |
| | 654 | 交泰丸 ○ 胸中이 痞滿하고 嘈雜하며 大便이 묽으면 脈中이 좀 扶하고 | 439 | | |
| | 654 | 寸口脈이 弱하고 緩할 경우에 弱 - 陽氣가 不足한 症이요 緩 - 胃氣가 有餘 | 440 | | |
| | 657 | 잔 것을 많이 먹으면 脈이 凝澁하고 色이 變하며 | 441 | | |
| | 660 | 胸中에 막혔는데 上部는 脈이 있고 下部는 脈이 없으면 | 442 | √ | 20 |
| | 660 | 脈이 浮하고 大한데 누르면 도리어 澁한故로 宿食이 있는 것을 아는 것 | 443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內傷 | 660 | 脈이 數하고 滑한것은 宿食이 있는 症이니 | 444 | | |
| 虛勞 | 664 | 平人으로서 脈이 크면虛勞가 있는 症이요 脈이 極히 虛해도 또한 虛勞인 症 | 445, 446 | | |
| | 664 | 氣가 虛하면 脈이 弦하고 血이 虛하면 脈이 크다 | 447, 448 | | |
| | 664 | 脈이 虛하고 細하며 弱한 症은 虛勞요 脈이 弦하고 大한데 弦한 것은 減脈이요 大한 것은 乳脈이다. …… 虛와 寒이 서로 치면 革이라고 이름하는데…… | 449, 450 | | |
| | 664 | 寸口脈이 微하고 澁한데 微한 것은 衛氣가 衰한 症이요 澁한 것은 榮氣가 不足 | 451 | | |
| | 664 | 脈이 오는 것이 軟하면 虛한 症이요 緩한것도 虛한 것이요 微한것도 虛한 것이요 弱한것도 虛한 症이다. 脈이 弦한것은 中虛인 것이다. | 452~456 | | |
| | 664 | 脈이 細하고 微한 것은 血氣가 함께 虛…… 脈이 작은 것은 血氣가 함께 작은 症 | 457, 458 | | |
| | 664 | 脈이 大하고 乳한것은 奪血하고 血虛한 症이니 脈이 크기가 葱管과 같은 | 459 | | |
| | 664 | 脈이 沈하고 遲한것은 脫氣한 症이다 | 460 | | |
| | 664 | 平脈이 弦하고 大하면 勞損해서 虛…… 大하면서 無力한 것…… 數하면서 無力한 症 | 461~463 | | |
| | 664 | …… 或은 浮大하거나 或은 數大한 것은 …… 弦한 것은 …… | 464, 465 | | |
| | 664 | 만약 雙弦을 대하면 …… 數極한 症이 添加되면 危殆롭다. | 466, 467 | | |
| | 665 | 弦하고 濡하면서 無力하면 氣虛가 되는 法이다. 脈이 沈微하고 無力하면 氣虛가 甚한 法이요 弦하고 微하면 血虛인 것이요 澁하고 微하면 血虛가 甚한 法이요 | 468~471 | | |
| | 665 | 右脈이 浮하고 大하거나 혹은 大하고 弦한 것은 | 472 | | |
| | 665 | 右脈이 虛 微 細 弦한 것도 虛勞가 되는데 | 473 | | |
| | 666 | 脈이 반드시 虛하고 濡하면서 자주 끊어지는 것이 마치 瘧症과 비슷한데 다만 瘧脈이 弦한데 虛脈은 大하고 弦한것이 區別 | 474, 475 | | |
| | 668 | 大造丸 六脈이 虛微하고 血氣가 衰弱한 症 | 476 | | |
| | 669 | 呼吸이 甚히 가늘고 脈이 커서 倫次가 없으니 | 477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虛勞 | 669 | 脈이 微弱하고 氣력이 적고 | 478 | | |
| | 670 | 固眞飲子…… 行步가 無力하며 때로 或 泄瀉하고 脈度가 沈弱하며 | 479 | | |
| | 674 | 六味地黃元 ……骨蒸으로 痿弱하며 脈이 沈하고 虛한 症 | 480 | | |
| | 678 | 小建中湯 …… 故로 脈이 弦하고 배가 아프며 | 481 | | |
| | 683 | 煩悶하면 脈이 맺히고 代하며 心이 動搖하고 行動이 動悸하면 | 482 | | |
| | 683 | 平人의 脈이 큰 症이 勞가 되고 極虛한 症이 또한 勞가 되니 ……그 脈이 浮大하고 手足이 煩熱하며 …… 脈이 大한 症은 熱邪가 …… | 483~485 | | |
| | 684 | 溏泄을 내리고 脈이 緊하며 먹지 못하는 症 | 486 | | |
| | 685 | 鹿肉 …… 脈이 끊어진 症과 筋이 拘急한 症 | 487 | | |
| 霍亂 | 688 | 霍亂의 脈이 浮하고 洪하면 救할 수 있고, 微하고 遲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 1, 2 | | |
| | 688 | 脈이 많이 伏하면 끊어지기 쉽다. 脈代하면 霍亂하고, 代하면서 亂한 症도 …… | 3, 4 | | |
| | 688 | 脈이 滑하고 數하면 嘔가 되고 代한 脈은 霍亂이며, 微하고 滑한것은 살고 澁하고 數한 脈은 좋지 못하다. | 5, 6 | | |
| | 688 | ○ 脈이 가늘면서 澁하거나 或은 結하거나 或은 促하거나 或은 代한것은 다 死脈으로 斷定할 수 없으니 대체로 脈이 亂한때문이다. | 7, 8 | | |
| | 688 | 脈이 浮하고 大하면서 洪한 症은 救., 微하고 弱하면서 遲한症은 救하기 어렵다 | 9, 10 | | |
| | 689 | 二香黃連散伏暑霍亂에 腹痛하고 躁悶하고 脈이 沈하고 手足이 冷한 症 | 11 | | |
| | 689 | 加味薑附湯 …… 手足이 逆冷하고 氣가 적어서 말하지 못하며 六脈이 沈伏한 症 | 12 | | |
| | 689 | 吐瀉脇痛轉筋에 脈이 弦한 症은 | 13 | | |
| | 690 | 參胡三白湯 ○ 霍亂後에 煩熱하고 口乾하며 脈이 芤或은 頭痛身痛하는 症을 | 14 | | |
| | 691 | 四肢가 厥冷하고 氣가 끊어지려 하고 脈이 洪大하면 | 15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霍亂 | 691 | 팔목과 무릎을 지나며 六脈이 伏絶하고 氣가 喘하고 | 16 | | |
| | 691 | 脈이 微遲하고 氣가 적어서 말하지 못하면 | 17 | | |
| 嘔吐 | 693 | 寸口脈이 數하면 곧 吐한다. 寸口脈이 細하고 數한 경우에 數-熱, 細-寒 | 18, 19 | | |
| | 693 | 陽氣가 微弱하고 膈氣가 虛하면 脈이 數하니 | 20 | | |
| | 693 | 陽脈이 緊하고 陰脈이 數하면 먹은 뒤에 곧 吐한다 …… 脈이 滑하면 嘔吐한다 | 21, 22 | | |
| | 693 | 단지 浮하기만 한 症은 …… 芤한 症은 瘀血이 ……가장 忌하는 症은 濡하고 弱한 것 | 23~25 | | |
| | 693 | 脈이 緊하고 澁하면病을 고치기 어렵다. 脈이 弦한症은 虛한 것이니 | 26, 27 | | |
| | 693 | 噎膈과 反胃에 脈이 浮하고 緩한症은 살고 沈하고 澁한症은 죽으며 脈이 澁하고 작은것은 血이 不足한 뜻이요 脈이 大하고 弱한症은 氣가 不足한 症 | 28~31 | | |
| | 694 | 加減理中湯 胃가 寒冷하여 清水와 冷涎을 嘔吐하고 脈이 沈하며 遲한症 | 32 | | |
| | 694 | 和中桔梗湯 上焦가 熱하고 먹고 나면 暴吐하고 脈이 浮하며 洪한 症 | 33 | | |
| | 695 | 黃連竹茹湯 胃가 熱하여 嘔吐하고 煩渴하고 脈이 澁은 症 | 34 | | |
| | 696 | 嘔吐하고 脈이 弦한 症은 肝이 脾를 이긴 症이니 | 35 | | |
| 697 | 그 脈은 浮하고 洪하며 그 症은 먹고 나면 暴吐하고 | 36 | | | |
| 697 | 그 脈은 浮하고 弦하며 그 症은 或은 먼저 吐하고 | 37 | | | |
| 697 | 그 脈은 沈하고 遲하며 그 症은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吐하고 | 38 | | | |
| 698 | 三陽에 熱이 맺히면 脈이 반드시 洪數하여 힘이 있고 | 39 | | | |
| 703 | 嘔吐에 脈弱小便不利하며 몸이 微熱하면서 | 40 | | | |

52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咳嗽 | 706 | 기침의 病因으로 脈이 浮한 症은 風이고 緊한症은 寒이며 數한症은 熱이고 細한症은 濕이며 房勞는 濡하고 難하다. | 41~45 | | |
| | 706 | 浮하고 短한症은 肺가 傷한 症 | 46 | | |
| | 706 | 脈이 浮하고 緊한 症은 …… 沈하고 數한 症은 …… 洪하고 滑한 症은 …… 弦하고 澀한 症은 …… 脈이 細하면 …… 沈小하고 伏匿한 症은 다 …… 오직 浮하고 大하며 …… | 47~53 | | |
| | 708 | 風에 傷한 咳는 脈이 浮하고 憎寒하며 壯熱하고 | 54 | | |
| | 709 | 脈이 緊하고 憎寒하고 發熱하며 脈이 없고 | 55 | | |
| | 709 | 얼굴이 희고 脈이 弦하면 微涎이 나오고 | 56 | | |
| | 709 | 橘蘇散 傷寒에 기침하고 身熱하여 脈이 있고 脈이 浮하고 數한데 | 57 | | |
| | 710 | 半夏溫肺湯…… 嘈雜하며 清水를 침벨고 脈이 浮하고 弦하며 細하고 遲한 것은 | 58 | | |
| | 710 | 기침하는 것은 脈이 數하고 煩熱하며 引飲하고 | 59 | | |
| | 710 | 잠간 동안 그 脈이 洪하고 滑한 것은 | 60 | | |
| | 711 | 小黃丸 熱痰 咳嗽에 脈이 洪하고 얼굴이 붉고 煩渴한 症 | 61 | | |
| | 711 | 濕에 傷해서 咳하는 것은 脈이 가늘고 骨節이 煩痛하고 | 62 | | |
| | 711 | 白朮湯 濕嗽에 痰이 많고 몸이 무겁고 脈이 濡하고 細한 症 | 63 | | |
| | 711 | 白朮丸 濕痰과 기침에 몸이 무겁고 脈이 緩한 症 | 63 | | |
| | 718 | 얼굴이 붉고 혹은 煩渴하여 引飲하고 脈이 洪하고 數하다 | 64 | | |
| | 721 | 九味理中湯 寒喘을 다스리니 寒喘이란 症은 手足이 冷하고 脈이 沈細한 症 | 65 | | |
| | 724 | 麥門冬湯 …… 몸의 痰이 기름과 같고 脈이 浮하고 洪하면서 | 66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咳嗽 | 724 | 加味生脈散 脈이 伏하고 喘促하며 …… 눈이 돌아가고 脈이 가늘고 | 67, 68 | | |
| | 725 | 氣가 短하고 비껴서 숨쉬며 그 脈이 平한것 | 69 | | |
| | 725 | 神秘湯…… 氣로 하여금 流通하지 못하게 하고 그 脈이 沈하고 大하니 | 70 | | |
| | 727 | 喘急하여 눕지 못하고 그 脈이 浮한데 누르면 虛하고 澁한것은 | 71 | | |
| | 732 | 喘하고 눈이 脫狀하고 脈이 浮하며 大한 것 | 72 | | |
| | 732 | 煩躁하면서 喘하고 脈이 浮한 것 | 73 | | |
| | 733 | 寸口の 脈이 잦고 口中에 濁唾와 涎沫이 있는 것 | 74 | | |
| | 733 | 가슴이 隱隱하게 疼痛하며 脈이 도리어 滑數한 것 | 75 | | |
| | 735 | 胃口 차고 脈이 가늘며 혹은 吐하고 下하니 | 76 | | |
| | 735 | 입이 쓰며 가슴이 가득하고 脈이 잦은症 | 77 | | |
| | 737 | 咳하고 羸瘦하며 脈이 堅大하면 죽고 咳하면 …… 發熱하고 脈이 작고 緊急하면 | 77, 78 | | |
| | 737 | 脈이 잦고 熱이 있고 喘嗽하며…… 어깨로 숨쉬며 脈이 浮하고 大하면…… | 79, 80 | | |
| | 737 | 煩躁하고 脈이 없으며 몸이 차고 ……手足이 厥冷하고 脈이 흩어지고 또 數한 症 | 81, 82 | | |
| | 737 | 脈의 보이는 것이 沈하고 微하고 散하면 | 83 | | |
| 積聚 | 741 | ……얼굴이 푸르고 脈이 弦하고 길며 …… 얼굴이 붉고 脈이 잦고 實하며 …… 얼굴이 누르고 脈이 크고 虛하며 …… 얼굴이 희고 脈이 잦고 浮하며 …… 얼굴이 검고 寸口脈이 大하고 實하며 …… | 84~88 | | |
| | 742 | 鬱脈은 沈伏한症이 많고 或은 結하고 或은 促하며 或은 代한症이다. | 89~92 | | |
| | 742 | 鬱脈은 沈 澁하고 積脈은 弦 堅하다 | 93, 94 | | |
| | 742 | 右脇에 있으면 積氣가 있으니 肺脈을 얻으면 結한 症…… 手脈이 반드시 沈伏한 症 | 95, 96 | √ | 1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積聚 | 742 | 그 脈이 다喘하고 數하며 ……그 脈이 弦하고 길며 ……그 脈이 다 큰 것이다 | 97~99 | | |
| | 742 | 脈이 弦하고 緊하면 積인 症이요 脈이 弦하고 緊하며 微細하면 癥인 症 | 100, 101 | | |
| | 742 | 積이 안에 있고 脈이 보이지 않으면 …… 한 脈이라도 서로 應하는 것이 있으면 …… | 102 | | |
| | 742 | 그 脈이 堅하고 強하며 急하면 살고 虛하고 弱하면 죽는다 | 103, 104 | | |
| | 742 | 脈이 弦하고 伏한 症은…… 脈이 結緊한 것은 牢小한데 있고 沈實하며 或은 結하고 或은 伏하여 …… 實하고 強한 症은 살고 沈하고 小한 症은 죽는다 | 105~111 | | |
| | 742 | 脈이 沈伏한 症은 背에 붙고 肝이 弦하고 心이 芤하며 腎이 沈하고 急하고 脾가 實하고 또 長하며 肺가 浮하고 喘한 症 …… | 112~117 | √ | 2~6 |
| | 742 | 六聚는 結하고 沈하며 痲疾은 浮하고 結한다 | 118, 119 | | |
| | 742 | 그 脈이 弦 ; 弦하면서 急한 症은 癥이요 弦하면서 細한 症은 癥이 堅한 症 | 120, 121 | | |
| | 742 | 脈이 沈重하고 가운데가 홀어지며 …… 沈重하면서 氣微이 있는 것은 …… | 122, 123 | | |
| | 742 | 緊하면痛이 얽히게 되니 虛弱하면 죽고 實強하면 산다 | 124, 125 | | |
| | 742 | 腹中에 積이 있으면서 脈의 虛弱한 것을 忌한다 | 126 | | |
| | 742 | 婦人의 疝癥과 積聚의 脈이 弦急한 症은 살고 작은症은 죽는다 | ~128 | | |
| | 743 | 가슴이 脹滿하고 갈비가 疼痛하며 脈이 沈하고 澁하니 | 129 | | |
| | 743 | 陰寒을 만나면 문득 發하고 脈이 沈하고 濡하니 | 130 | | |
| | 743 | 小便이 赤濁하고 脈이 沈하며 數하니 | 131 | | |
| | 743 | 小便이 淋하고 大便이 붉고 脈이 沈하며 芤하고 澁하니 | 132 | | |
| | 744 | 鼓脹痞塊를 兼하고 脈은 氣口가 緊하며 盛하니 | 133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浮腫 | 769 | 風水이니 脈이 스스로 浮하여 ……皮水라고 하니 脈이 또한 浮하고 ……正水라고 하는데 脈이 沈遲하고 ……石水라고하니 脈이 沈하고 ……黃汗하는데 脈이 沈遲하고 | 134~138 | | |
| | 761 | 모든 脈이 沈한 症은 …… 水病에 脈이 洪大한 症은 易治요 微細한 症은 難治다 | 139~141 | | |
| | 761 | 水病에 脈이 實하면 살고 虛하면 죽는다 水氣가 沈脈을 일으키면 …… | 142~144 | | |
| | 761 | 水氣에 脈이 浮하고 大하면 可하고 沈하고 細하면 나았다가 다시 發한다 | 145, 146 | | |
| | 761 | 上氣하고 浮腫하는데 脈이 浮하고 滑하면 可하고 微하고 細하면 難治다 | 147, 148 | | |
| | 761 | 대체로 沈伏한 症이 많다 …… 脈이 반드시 沈數하고 ……脈이 반드시 沈遲하다 | 149~151 | | |
| | 761 | 沈과 伏이 相搏하는 症을 水라고 하며 | 152 | | |
| | 763 | 導滯通經湯 …… 飲食이 減少하고 脈이 弦細하면서 緩하니 | 153 | | |
| | 766 | 脈이 끊어지고입술을 벌리고 발이 부은 症 | 154 | | |
| | 脹滿 | 770 | 脈이 크고 堅하는데 滿한 症은 脹이다. 脈이 盛하는데 緊한 症을 脹이라고 한다. | 155, 156 | |
| 770 | | 脹滿의 脈이 弦하면 脾가 肝의 制御를 받는 症이며 洪하고 數한 症은 熱脹이고 遲하고 弱한 症은 陰寒한 症이며 浮한 症은 虛滿이고 緊한 症은 實한 症이니 浮한 症은 다스리고 虛한 症은 危急한 症이다. | 157~163 | | |
| 770 | | 浮大한 症은 다스리며 虛하고 小한 症은 保全하기 어렵다 | 164, 165 | | |
| 770 | | 脈이 반드시 浮하고 數하게 되니 浮하면 虛가 되고 數하면 熱이 되는데 | 166, 167 | | |
| 774 | | 濟生紫蘇子湯 ……大小便이 不利하고 脈이 虛하고 緊하며 滿한 것인데 | 168 | | |
| 774 | | 밤이면 더욱 甚하고 脈이 弦하면서 細하니 | 169 | | |
| 776 | | 腹脹하고 몸이 熱하고 脈이 큰 것이 一逆이고 | 170 | | |
| 脹滿 | | 776 | 四肢가 清冷하고 泄瀉하고 脈이 큰 것이 二逆이며 | 171 | |
| | 776 | 배가 脹滿하고 便血하고 脈이 크면서 때때로 끊어지는 것 | 172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消渴 | 778 | 脈이 實하고 大하면서 病이 오래된 …… 脈이 懸小하고 堅하면서 病이 오래된 …… | 173, 174 | | |
| | 778 | 消渴에 脈이 마땅히 堅實하고 찾아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沈瀦하고 가늘면難治 | 175, 176 | | |
| | 778 | 消渴에 脈이 數大한것은 살고 細小하고 浮短한것은 難治다. | 177, 178 | | |
| | 778 | 心脈이 滑하면 渴이 되는데 …… 心脈이 微小한 것은 消瘵이 되는 것이니 | 179, 180 | √ | 7, 8 |
| | 778 | 대체로 脈이 數하고 大한 것은 살고 沈하고 小한 것은 難治다 | 181, 182 | | |
| | 778 | 心脈의 滑한것이 甚한 것은 渴이 된다 | 183 | √ | 9 |
| | 778 | 마땅히 數하고 大하여야 되는 것이며虛하고 小한 것을 忌한다 | 184, 185 | | |
| 黃疸 | 787 | 脈이 沈하면 渴해서 물을 마시려 하며 小便이 不利한 症 | 186 | | |
| | 789 | 五疸의 實熱은 脈이 반드시 洪數하고 혹 微瀦한 症은 虛弱한데 屬한다 | 187, 188 | | |
| | 789 | 疸에 脈이 緩大한 症은 順하고 弦急하므로 堅한 症은 逆한 症이다 | 189, 190 | | |
| | 790 | 加減胃苓湯 黃疸에 飲食이 無味하고 行步가 倦怠하며 脈이 瀦하고 濡한 症 | 191 | | |
| | 792 | 心臟뒹이 痞硬하고 自汗하며 小便이 利하고 脈이 緊細하며 空虛하니 | 192 | | |
| | 792 | 茵陳吳茱萸湯 陰黃에 일찌기 薑附諸藥을 먹어도 낫지 않으며 脈이 더딘 症 | 193 | | |
| | 792 | ……黃이 發하고 脈이 沈細遲하고 無力하여 此劑로 藥을 쓰는데 茵陳附子湯에 …… | 194 | | |
| | 795 | 대개 黃疸에 寸口脈이 손바닥에 가까와서 脈이 없고口鼻가 차고 겹으면 | 195 | | |
| 痰瘧 | 799 | 瘧疾의 脈은 대체로 弦한 症인데 弦하고 數한 症은 熱이 많고 弦하고 遲한 症은 寒이 많은데 弦하고 小하며 緊한 症은 下해야 하고 弦하고 遲한 症은 濇하게 해야 하고 弦하며 緊한 症은 發汗해야 하며 浮하고 大한 症은 吐해야 하고 弦하고 數한 症은 風으로 發해야 하는데 …… | 196~203 | | |
| | 799 | 瘧脈이 스스로弦하고 微하면 虛한 症이고 代하고 散하면 危險한 症 | 204~205 | | |
| | 799 | …… 스스로 弦한 症인데 弦하고 遲하면 寒이 많고 弦하며 數하면 熱이 많은 症이나 | 206~208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 내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痰癆 | 799 | 瘧脈은 弦한症이 많은 것인데 熱하면 弦하면서 遲한症을 띠고 또한 病이 오래되면 脈이 極히 虛하여 微하면서 無力하여 弦한 것같지 않으면서 반드시 虛하고 數한 가운데 弦한 症이 보이되 다만 손끝은 들이받지는 않으니 | 209~211 | | |
| | 799 | 弦하고 短한症은 飲食에 傷한 症이요 弦하고 滑한 症은 痰이 많으며 微하고 無力한症은 瘧疾이 오래된 症이다. 瘧의 脈이 遲遲하면 病이 스스로 낫는다 | 212~215 | | |
| | 801 | 白虎桂枝湯 溫瘧에 脈이 平한 것같고 몸은 차지 않고 다만 熱하며 | 216 | | |
| | 804 | 龍虎湯 …… 입술이 타고 코가 煙氣로 熏한 것같고 六脈이 洪하고 緊한 症 | 217 | | |
| | 808 | 瘧疾과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脈이 꼭 弦하지도 않으니 | 218 | | |
| | 810 | 人參竹瀝散 …… 痰이 盛하며 혀가 크고 말이 澁하고 脈이 虛하며 無力한 症 | 219 | | |
| | 812 | 寒熱로 脫形하고 脈이 緊하고 博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 220 | | |
| 溫疫 | 814 | 尺胗가 熱이甚하고 脈이 盛하며 躁한 症은 溫病이다. | 221 | | |
| | 814 | 陰陽이 다 盛하면 熱病의 極한 症이니 浮하면서 滑하고 沈하면서 散澁한 것인데 | 222 | | |
| | 814 | 陽脈은 濡弱하고 陰脈은 弦緊한데 다시 溫氣를 만나면 變해서 瘟疫이 된다 | 223 | √ | 10 |
| | 814 | 몸이 熱하며 頭痛하고 배가 가득하며 飲食은 如常한데 脈이 直하고 疾하면 | 224 | | |
| | 814 | 頭痛하고 배가 가득하여 扞하고 脈의 오는 것이 細하면서 強하면 | 225 | | |
| | 814 | 도리어 利하고 脈의 오는 것이 澁한데 누르면 不足하고 들면 커지며 | 226 | | |
| | 814 | 땀이 스스로 나는데 脈이 堅하고 強하며 急하면 살고 虛하고 軟하면 죽는다 | 227, 228 | | |
| | 814 | 溫病에 계속해서 大熱이 나고 脈이 細小하면 죽는다 | 229 | | |
| | 814 | 마땅히 땀이 나는 법인데 도리어 땀이 나지 않고 脈이 끊어지면 | 230 | | |
| | 814 | 脈이 靜하고 땀이 이미 났어도 脈이 盈한症이 一逆이니 | 231 | | |
| | 817 | 黑奴丸 瘟疫熱病에 脈이 洪數고 大하며 熱이 狂走하고 渴이甚한데 | 232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温疫 | 820 | 變亂을 일으키니 傳染하는 症은 脈이 淨하지 않는 症 | 233 | | |
| 邪祟 | 824 | 脈의 오는 法이 遲하고 伏하며 혹은 參새가 쫓는 것과 같은 症은 邪脈이고 | 234 | | |
| | 824 | 脈이 ……弱하고 綿綿하고 遲伏하거나 或은 綿綿해서 度數를 알지 못하면서 | 235, 236 | | |
| | 824 | 脈이 오는 法이 잠깐 컷다가 잠깐 작고 잠깐 째었다가 잠깐 길어지는 症 | 237 | | |
| | 824 | 兩手の 脈이 浮浮하고 細微하며 綿綿하여서 알 수가 없는데 다만 陰脈이 있어서 또한 가늘고 綿綿하니 | 238 | | |
| | 824 | 脈이 오는 것이 洪大하며서 弱한 症은 杜祟고 | 239 | | |
| | 824 | 脈의 오는 것이 沈沈하고 濇濇하며 四肢가 무거운 症은 | 240 | | |
| | 824 | 脈의 오는 것이 飄風과 같고陰을 쫓아서 陽으로 달아나는 것은 | 241 | | |
| | 824 | 하나는 오는 法이 고르고 하나는 오는 法이速한 것 | 242 | | |
| | 824 | 心脈이 虛散하고 肝脈이 洪盛하며 或은 浮沈 長短 大小가 一定하지 않고 或은 錯雜하여 고르지 않다 | 243~246 | √ | 11, 12 |
| | 824 | 잠깐 성글고 잠깐 째고 잠깐 컷다가 잠깐 작아지고或은 促하고 或은 멎힌 症 | 247 | | |
| | 824 | 疰脈이 浮大하면 다스리고 細數하면 難治인 症이다 | 248, 249 | | |
| | 824 | 謔語하고 發狂하고 六部가 脈이 없는데 大指의 밑과 寸口위에 動脈이 있으니 | 250 | | |
| | 824 | 脈이 沈沈하고 澤澤하며 四肢가 不仁한 症 …… 或은 大하면서 弱한데 弱한 症 | 251, 252 | | |
| | 824 | 乍大乍小하고 乍短乍長한 症은 鬼祟다 | 253, 254 | | |
| 癰疽 | 829 | 모든脈이 浮하고 數하면응당 發熱해야 하는데 도리어 洒淅하게 | 255 | | |
| | 829 | 脈이 微하고 遲한데 도리어 發熱하고 脈이 弱하고 數한데 도리어 振寒하는 症 | 256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癰疽 | 829 | 脈이浮하고數하며신체가熱이없고얼굴이嘿嘿하고胸中에약간煩燥하며 | 257 | | |
| | 832 | 數脈이때가맞지않으면惡瘡이난다. | 258 | | |
| | 832 | 癰疽는浮數하고惡寒發熱하며만약痛處가있으면……脈이數하고發熱하면서 疼痛한症은陽……數하지도熱하지도痛하지도않으면陰瘡……癰을發하는脈은 弦과洪이서로攻搏하고또沈細하면서直하는症은…… | 259~263 | | |
| | 832 | 浮하고洪하며滑한症은陽이고,微하고沈하며緩하고瀦한症은陰이다 | 264, 265 | | |
| | 832 | 脈이數하고몸이熱이없으면……몸에熱도없으면서脈이數하면腸중에膿…… | 266, 267 | | |
| | 832 | 脈이滑하고數한데數하면熱이고滑하면實하다 | 268 | | |
| | 832 | 瘡疽에膿血이大泄하고脈이滑大數한것은치료하기어렵다 | 269 | | |
| | 832 | 膿血이기침으로吐하고脈이洪滑하게나타나면낮기가어렵다 | 270 | | |
| | 832 | 煩痛하는症은毒이全退한症이아니며그脈이洪粗하고또힘이없다 | 271 | | |
| | 832 | 癰疽脈이滯하고澁한症은다만和緩한症을얻으면平하여지는症이며만약洪하고 粗하면鏡毒을收斂할수없으니고치기가어렵다 | 272, 273 | | |
| | 834 | 만약脈이沈實하면먼저그안을疎通하여……脈이浮大하면먼저托裏하여…… | 274, 275 | | |
| | 835 | 內疎黃連湯癰疽에脈이洪하고實하면서發熱하고煩燥하고臟腑가秘澁한것 | 276 | | |
| | 836 | 문득脈이沈細하면서煩悶하고邪毒이猛暴하며 | 277 | | |
| | 836 | 形症이겉에있고그脈이浮하고氣가盛하지않으면 | 278 | | |
| | 848 | 그脈을살펴서短하고澁하면저절로낮고浮하고大한症은치료하기어렵다 | 279, 280 | | |
| | 850 | 胃脈을살펴야하는데그맥이마땅히沈細할것이다 | 281 | √ | 13 |
| | 850 | 脈이洪數한것은膿이이미……脈이遲緊하면비록膿이되지않았더라도 | 282, 283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백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癰疽 | 850 | 胃中の 清氣가 下陷…… 胃脈이 沈細하고 寒氣가 阻隔…… 人迎이 緊盛하는 症이니 | 284 | | |
| | 851 | 東垣托裏散 …… 一切의 惡瘡의 初發腫痛하고 脈이 洪數弦實하여 膿이 되려는 症 | 285 | | |
| | 852 | 濕熱이 腸內에 鬱積하여 癰이 되고 脈이 더디며 堅한 症 | 286 | | |
| | 852 | 脈이 芤하고 澁한 症은 …… 脈이 洪하고 數한 症은 …… | 287, 288 | | |
| | 852 | 腸癰이 알기가 어려운데 脈이 滑한 症은 推數해서 熱을 내려야 | 289 | | |
| | 852 | 脈이 遲하고 緊한 症은 膿이 되지 않은 症이니 내려서 平하게 하고 | 290 | | |
| | 852 | 脈이 洪하고 數한 症은 膿이 이미 된 症이니 내리지 않는 法이 마땅하다 | 291 | | |
| | 852 | 腸癰의 脈은 滑하고 數하니 滑한 것은 實한 症이요 數한 것은 熱한 症이며 | 292 | | |
| | 852 | 大黃牧丹湯 腸癰에 脈이 더디고 緊한 症은 膿이 되지 않은 症이니 | 293 | | |
| | 853 | 배가 疼痛하면 脈이 마땅히 沈細한것인데 이제 도리어 滑數하니 | 294, 295 | | |
| | 861 | 千金消毒散…… 처음 發할 때에 脈이 洪數하고 弦實하여 膿이 되고자하는 症 | 296 | | |
| | 866 | 灸法 …… 變色하지 않으며 脈이 沈하고 痛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 297 | | |
| | 866 | …… 脈이 實하고 膏粱한 사람이 마땅히 ……. | 298 | | |
| 諸傷 | 906 | 脈이 實하고 무겁지 않은 것과 피가 나와서 虛한 것과 | 299, 300 | | |
| | 906 | ……脈이 虛하고 가는 것은 살고 數하고 實한 것은 죽으며 피가 많이 나와 脈이 沈하고 작은 것은 살고 浮하고 大한 것은 죽으며 金瘡에 傷해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고 脈이 큰 것은 七日만에 죽고 脈이 滑하고 細한 것은 살게 된다. | 301~306 | | |
| | 906 | 金瘡에 피가 많이 나와 脈이 虛하고 가는 것은 좋고 實하고 大한것은 危殆하다 | 307, 308 | | |
| | 906 | 傷한 것이 알아도 命脈이 虛하고 促하며…… 傷한 것이 重하여도 命脈이 和하고 緩하면 | 309, 310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諸傷 | 906 | 피가 많이 나온 데 脈이 洪大하면 좋지 못하고 平正하고 重實하면 좋다 | 311, 312 | | |
| | 911 | 속에 瘀血이 있고 그 脈이 堅強한症은 살고 小弱한症은 難治 | 313, 314 | | |
| | 911 | 血出이 過多하면 脈이 마땅히 虛細하여야 되는 것인데 만약 急,疾,大,數하면 | 315, 316 | | |
| | 911 | 臟腑의 致命한 곳을 傷하고 脈이虛促하면 危殆하다 | 317 | | |
| 解毒 | 923 | 蠱毒의 脈은 비녀와 같이 뿔뿔하다. | 318 | | |
| | 923 | 百藥에 中傷한 脈이 浮洪하고 疾한 症은 살고 微細한症은 죽는다. | 319, 320 | | |
| | 923 | 脈이 洪大하고 遲한 症은 살고 微細하고 數한 症은 죽는다. | 321, 322 | | |
| | 926 | 蠱退紙 …… 비록 낮이 푸르고 脈이 끊어져서 昏迷하고…… | 323 | | |
| 救急 | 933 | 尸厥이란 症은 脈이 움직여도 氣가 없고 氣가 닫혀 서로 通하지 않는 | 324 | | |
| | 933 | 氣가 끊어지지 않고 脈이 움직이는 것이 如常하든지 혹 秩序가 없거나혹 잠깐 컸다가 잠깐 작았다가 하거나 혹은 微細하여서 보이지 않고 心胸이 따스한 症 | 325~328 | | |
| | 933 | 몸과 脈이 다 動하면서 知覺이 없고 송장과 같으므로 | 329 | | |
| | 933 | 卒地에 죽고 脈은 오히려 움직이며 四肢가 逆冷하고 | 330 | | |
| 婦人 | 954 | 男子의 脈이 微弱하고 滿한 症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 331 | | |
| | 954 | 微澁하면 精이 淸하고 겸하여 虛冷이…… 脈이 微滿하면 …… | 332, 333 | | |
| | 954 | 남자의 脈이 微弱하고 滿하면 | 334 | | |
| | 957 | 先天歸一湯 ……經이 고르고 脈이 和하며 곧 孕胎한다 | 335 | | |
| | 960 | 婦人の 足少陰의 脈이 움직이는 것이 甚한 것은 孕胎한 것 | 336 | √ | 14 |
| | 960 | 脈이 滑疾한데 무겁게 손으로 눌러서 흠어지는 症은 胎가 이미 3月……. 무겁게 손으로 눌러도 흠어지지 않고 다만 疾하고 滑하지 않는 症은 5月이 된 것 | 337, 338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婦人 | 960 | 婦人의 三部脈이 浮하고 沈한 것이 正等하고 끊어지지 않는 症은 妊娠한 …… | 339 | | |
| | 960 | 8月이면 脈이 實하고 大하고 牢하고 強하며 弦하고 緊한 것…… 細한 것 …… | 340, 341 | | |
| | 961 | 左手脈이 沈하고 實하면 男이요 右手脈이 浮하고 大하면 女이며 左右手의 脈이 다 같이 沈實하면 2男을 낳고 다 같이 浮大하면 2女를 낳는다 | 342~345 | | |
| | 961 | 男女의 區別을 左右로써 取하는데 左가 疾하면 男이 되고 右가 疾하면 女가 되는 것인데 沈實한 것은 左에 있고 浮大한 것은 右에 있으니 | 346~349 | | |
| | 963 | 保生湯 ……病이 있는 것같고 脈이 滑大하면서 六脈이 다 고른 것은 | 350 | | |
| | 963 | 一方 …… 症勢가 더 심하고 脈이 左가 弦한 것이甚하니 | 351 | | |
| | 967 | 白扁豆散 …… 人事不省하고 그 脈이 浮하고 軟한 症 | 352 | | |
| | 969 | 半產과 漏下하는 症은 革脈이 主하고 弱하면 血이 消耗되어서 …… | 353, 354 | | |
| | 969 | 少陰脈이 浮하고 緊하면 緊한 症은 疝瘕로 腹中이 疼痛하고 半產이 되어 …… | 355 | √ | 15 |
| | 969 | 解產하려는 婦人은 脈이 離經하여 沈細하고 滑하다 | 356 | | |
| | 969 | 한번 숨쉬는데 脈이 여섯번 이르는 것이니 沈細하고 滑하며 陳痛이 허리에 …… | 357 | | |
| | 974 | 來麩散 臨産에 힘을 너무 써서 氣가 衰하고 脈이 微하며精神이 昏暈하고 | 358 | | |
| | 986 | 下血을 過多한 것이 있으니 脈이 반드시 虛大하고 無力하며 臍속에 痛症이 …… | 359 | | |
| | 991 | 參朮膏 …… 補完할 수 있으니 그 脈을 보니 虛가 심하여 | 360 | | |
| | 993 | 洪하고 實하여 고르지 못한 症은 ……沈하고 微하여 脈에 붙어서 끊어지지 않는 症 | 361, 362 | | |
| | 993 | 解產한 脈이 沈하고 小한 것은 …… 實하고 大하며 強하고 急한 症은 …… | 363, 364 | | |
| | 993 | 解產한 脈이 緩하고 滑한 것을 …… 實大하고 弦急한 것은 …… 또 沈細하여 脈에 붙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 | 365~367 | |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현 순번 | 맥 부위 표시 | |
|------|------------------------------------|-----------------------------------------------------------------------------------|----------|---------|-------|
| | | | | 표시 여부 | 출현 순번 |
| 婦人 | 995 | 脈을 짚어보면 肝脈이 弦하고 寸口를 벗어나니 | 368 | √ | 16 |
| | 995 | 땀이 저절로 흐르고 肝脈이 弦하고 길어서 寸口를 벗어나니 …… | 369 | √ | 17 |
| | 995 | 혹은 혼자서 웃고 혹은 울고 脈이 遲伏하고 혹은 雀啄과 같고 | 370 | | |
| | 996 | 芙蓉散 …… 情慾이 火를 움직여 가슴이 아프고 自汗하고 불이 붉고 脈이 亂한 症 | 371 | | |
| 小兒 | 1008 | 그 症勢가 놀란 것과 같고 重하면 熱이 壯하고 脈이 亂하며 數하고 | 372 | | |
| | 1010 | 三歲로부터 五歲에 이르기까지는 한손가락으로써 …… 一息에 六~七번 이르는 것을 | 373 | | |
| | 1010 | 七歲로부터 …… 한손가락으로써 三部脈을 눌러서 一息에 七~八至는 平和한 것이고, 八~九至는 發熱한 것이며, 五至는 속이 찬 것이다. | 374~376 | | |
| | 1010 | 小兒가 脈이 亂하면 다스리지 못하고 弦急하면 氣가 和하지 못하며 沈緩하면 飲食이 傷한 것이고, 促急한것은 虛驚이며 浮한것은 風이요 沈細한것은 冷한 | 377~382 | | |
| | 1010 | 浮緩한 것은 風에 傷한…… 洪緊한 것은 寒에 傷한…… 數한 것은 熱…… 遲한 것은 寒 | 383~386 | | |
| | 1021 | 불이 붉고 입술이 붉고 大小便이 黃赤하고 脈이 浮數洪緊하는데 | 387 | | |
| | 1023 | 全身과 四肢가 차고 默默히 말하지 않으며 脈이 沈하고 遲한데 | 388 | | |
| | 1023 | 口眼과 手足이 때때로 牽制하고 脈이 或은 浮하고 或은 沈하며 | 389, 390 | | |
| | 1027 | 咽喉가 氣를 끊으며 呼吸이 굵고 크며 脈의 오는 것이 浮하고 數하면 | 391 | | |
| | 1029 | 몸이 溫하기도 하고 冷하기도 하며 四肢가 冷하고 그 脈이 沈微하며 | 392 | | |
| | 1064 | 얼굴이 희고 乳食을 吐하고 目睛이 푸르며 脈이 沈數하는 | 393 | | |
| 1064 | 小便이 붉고 渴症이 그치지 않으며 上氣가 急하고 脈이 洪數하는 | 394 | | | |
| 1071 | 한번만 秘結하면 腸胃가 壅遏하고 脈이 澀하며 氣가 滯하여서 | 395 | | | |

별표 2. 寸關尺 配屬法이 表記된 脈診 醫案

| 권명 | 수목 페이지 | 조문내용 | 출현 순번 |
|----|--------|------------------------------------------------------------------------------|-------|
| 精 | 18 | 遺精과 白濁은 마땅히 尺脈에서 微驗하니 結 朮 動 緊이 2證의 脈이다. | 1 |
| 氣 | 29 | 沈脈 弦脈 細脈 動脈은 모두 氣痛證이다. 心痛은 寸에 있고 腹痛은 關에 있으며 下部의 痛症은 尺에 있는데 脈象이 뚜렷이 나타난다. | 2 |
| 夢 | 76 | 맥을 보니 兩手の 寸脈 다 沈하고 伏하였다. | 3 |
| 津液 | 90 | 尺이 澁하고 脈이 滑하면 痰이 많다. 註釋에 가로되 尺膚가 澁하고 尺脈이 滑함 | 4 |
| | 90 | 肝脈이 浮虛하고 或濡, 或澁하니 自汗하는 症은 寸에 있고 盜汗하는 症은 尺에 있다. | 5 |
| | 90 | 寸口脈이 가늘고 尺脈이 緊하면 그 사람이 虛損하고 多汗하며 | 6 |
| 痰飲 | 104 | 무슨 病이든지 百藥이 不效하고 關上脈이 伏하며 大하면 痰症이니 | 7 |
| 胞 | 144 | 寸關脈은 고르고 正常인데 尺脈이 끊어져서 이르지 않으면 月水가 不利하다. | 8 |
| | 144 | 尺脈이 오면서 때때로 끊어지면 月水가 不利하고 肝脈이 沈하면 月水가 不利하며 尺脈이 滑하면 血氣가 實하므로 婦人은 經脈이 不利한 症이다. | 9~11 |
| 蟲 | 159 | 關上脈이 緊하고 滑하면 蝮毒이요 | 12 |
| | 159 | 關上脈이 微하고 浮하면 積熱이 胃中에 있어서 | 13 |
| | 159 | 尺脈이 沈하고 滑하면 寸白蟲이 있고 | 14 |
| 小便 | 169 | 遺精과 白濁은 마땅히 尺脈에 微驗할 症이니 結 朮 動 緊의 脈은 위의 2症의 | 15 |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원 순번 |
|----|-----------|--------------------------------------------------------------------------------------------------------------------------------|--------|
| 小便 | 169 | 두 尺脈이 洪하고 數하면 반드시 便이 濁하고 遺精한다. | 16 |
| | 174 | 兩寸脈이 다 盛하면 關格이라고 하니 | 17 |
| 大便 | 190 | 大便이 閉結하고 脾脈이 沈數하여 밑으로 尺脈에 連하면 陽結이 되고 二尺脈이 虛하고 或 沈細하며 더디면 陰結이 되고 右尺脈이 浮하면 風結이 된다. | 18~20 |
| | 190 | 風燥에는 右尺脈이 浮肥한 法이다. | 21 |
| | 197 | 얼굴빛이 검고 발바닥이 때로 차며 尺脈이 虛하고 弱한 症이니 | 22 |
| 面 | 241 | 脈의 右關이 弦하고 緩하면서 浮를 띠고 있다. | 23 |
| 眼 | 247 | 左寸脈이 洪數하면 心火가 炎上한 것이요, 關脈이 弦하고 洪하면 肝火가 盛한 것이며, 右寸關이 함께 弦하고 洪하면 肝木이 相火의 勢를 껴서 | 24~26 |
| | 247 | ○눈병은 근본이 火에 있으니 …… 數하고 洪한 것이 右寸關이 나타나면 | 27 |
| | 247 | ○눈에 黑花가 보이는 症은 …… 左手尺脈을 診脈하면 沈하고 數한 것이 | 28 |
| 耳 | 281 | 左寸脈이 洪數하면 心火가 上炎하고, 兩尺이 洪數하면 相火가 上炎하니 | 29, 30 |
| | 281 | 暴病에 脈이 浮洪하는 것은 兩尺이 서로 같으며 或은 兩尺이 數하면 陰火 上衝 | 31, 32 |
| 鼻 | 290 | 左寸脈이 浮하고 緩하면 傷風한 것이니 …… 右寸脈이 浮洪하고 數하면 鼻衄 鼻鼈 | 33, 34 |
| | 290 | 穢氣가 있는데 脈이 弦少하고 右寸은 滑하며 左寸은 澁한데 | 35 |
| 口舌 | 296 | 左寸脈이 洪數하면 心이 熱하고 口가 赤하며 右寸脈이 浮數하면 肺가 熱하고 口가 乾하며 左關이 弦數하면 膽이 虛하고 口가 苦하며 洪實하면 肝이 熱하고 口가 苦하며 右關이 沈實하면 脾가 熱하고 口가 甜하며 洪數하면 口에 瘡가 나고 | 36~41 |

66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원 순번 |
|----|-----------|--------------------------------------------------------------------------------|--------|
| 牙齒 | 308 | 右關脈이 洪數하고 或은 弦하고 洪하면 腸胃中에 風熱이 있어서 牙痛하고, 尺脈이 洪大하고 虛하면 腎이 虛한 法이니 | 42, 43 |
| | 308 | ○齒痛에 腎虛하면 尺脈이 濡하며 大하고, 火가 炎上하면 尺脈이 洪한다. 이가 성기고 動搖하고 빠지는 것은 右寸關이 數하고 或은 洪하며 弦하니 | 44~46 |
| 咽喉 | 317 | 兩寸脈이 浮洪하고 溢한 症은 喉痺한 症이고 脈이 微하고 伏하면 죽는다. | 47, 48 |
| | 317 | 咽喉의 脈이 兩寸이 洪溢한 症은 上盛 下虛한 症이고 대체로 脈의 微伏은 忌 | 49, 50 |
| 胸 | 335 | 胸痺痛은 寸口脈이 沈하고 遲하며 關上脈이 小緊하고 數하다. | 51 |
| | 335 | 脈이 沈 弦 細 動이 다 痛症이니 心痛은 寸脈에서 腹痛은 關脈에서 下部는 尺脈에서 脈의 形象이 顯然하게 | 52 |
| | 335 | 痞病에 右關脈이 弦한 것이 많다. 弦하고 遲하면 반드시 心下가 堅한 法이다 | 53 |
| | 344 | 枳實消痞丸 痞가 되고 惡食하고 懶怠하며 右關脈이 弦한 症 | 54 |
| 腹 | 357 | 尺脈이 弦하면 腹痛한다. | 55 |
| | 357 | 尺脈이 緊하면 臍下가 痛하며 尺脈이 伏하거나 實하면 小腹이 痛한다. | 56, 57 |
| 腰 | 365 | ○尺脈이 沈하면 腰背가 疼痛한다. | 58 |
| 皮 | 375 | 脈이 浮하고 濡한 症은 氣血虛에 屬하니 關前이 그러하면 麻痺가 上體에 있고 關後가 그러하면 麻痺가 下體에 있다. | 59 |
| 足 | 404 | 尺脈이 虛 弱하고 緩 濡하면서 緊하면 足痛이나 或은 痿病이 | 60 |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원 순번 |
|-----|------------------------------------------|------------------------------------------------------------------------------------------------------------------------------|--------|
| 足 | 409 | 脚氣가 心에 들어가면 …… 左寸脈이 잠깐 컸다가 잠깐 적고 또 잠깐 없어지니 | 61 |
| | 409 | 눈과 이마가 다 검고 左尺脈이 끊어지면 難治니 | 62 |
| 辨證 | 478 | 尺이 虛한 것을 重虛라고 | 63 |
| 診脈 | 482 | 六氣가 있는 곳에 人脈이 이르면 尺과 寸의 兩脈이 應하는 法 | 64 |
| | 487 | 寸脈이 밑으로 關에 이르지 못하면 陰氣가 끊어진 症이니 다 죽는다 | 65 |
| 扞 | 501 | 胸中에 壅塞한데 兩寸脈이 주가 되고 兩尺脈이 보이지 않는 것은 | 66 |
| 風 | 516 | 혀가 굳어서 말하지 못하며 兩寸脈이 浮大하고 實急한데 | 67 |
| | 531 | 五物湯 다만 脈이 스스로 微하고 澁하고 寸口關上에 있어서 조금 緊하니 마땅히 | 68 |
| 寒 | 551 | 胸脇이 아프고 귀가 먹고 尺寸脈이 함께 弦한 症은 少陽이 病을 받은 症 | 69 |
| | 554 | 尺寸脈이 함께 沈하는데 沈하면서 빠르면 …… 沈하면서 더디면 …… | 70, 71 |
| | 557 | 囊이 오므라지며 그 脈은 尺寸이 함께 微하고 緩한 症…… 그 脈이 散하고 浮하면 나오려…… 浮하지 않으면 낫기가 어려운 症이 …… 脈이 浮하고 緩하면 반드시 囊이 오므라지지 않고 …… 만약 尺寸脈이 함께 沈하고 短하면 …… | 72~76 |
| | 558 | 尺寸脈이 微 緩한 症은 厥陰이 病을 받은 症이니 | 77 |
| 577 | …… 寸脈이 浮하며 關脈이 沈하면 …… 寸脈이 浮하고 關脈이 細小沈緊하면 | 78, 79 | |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원 순번 |
|----|-----------|----------------------------------------------------------------------------------------|--------|
| 寒 | 577 | 그 關脈이 위로 浮하는 症 …… 結胸과 痞에는 關脈이 沈해야 하는 症 | 80, 81 |
| | 577 | 寸口關上の 尺中の 三處가 大小浮沈遲數이 同等하면 …… 이것은 陰陽이 和平한 症 | 82 |
| | 588 | 脈이 뜨지 않으면 땀내지 못하고 脈이 微弱하고 或은 尺脈이 더디면 …… | 83 |
| | 589 | 太陽病에 脈이 浮하고 緊하며 몸이 疼痛하면 …… 가령 尺脈이 더디면 …… 안되는 症 | 84 |
| | 596 | 大便이 實하며 尺寸脈이 沈하고 | 85 |
| 濕 | 611 | 診察해 보니 脈이 關前에 濡하고 關後는 數하니 | 86 |
| 火 | 616 | 洪數이 左寸에서 - 心火…… 右寸에서 - 肺火…… 左關에서 - 肝火…… 右關에서 - 脾火…… 兩尺에서 - 腎經命門의 火…… 男子의 兩尺이 洪大한 것은 …… | 87, 89 |
| | 620 | 五苓散 腎氣가 內虛하여 邪熱이 腎經에 흘러 들어가고 尺脈이 洪하고 | 90 |
| 內傷 | 635 | 右寸 氣口脈이 急하고 大하면서 數하고 때로 한번씩 代하고 濇한 것은 | 91 |
| | 635 | 右關의 胃脈이 損傷되어 弱한 것이 甚하면 숨어서 보이지 않고 다만 안으로 脾脈의 大 數微 緩하면서 때로 한번씩 代하게 나타나는 것은 | 92 |
| | 635 | 右關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脈이다. | 93 |
| | 635 | 宿食이 消化되지 않으면 右關脈이 홀로 沈하면서 滑하게 된다 | 94 |
| | 636 | 左手關脈은 平和한데 右手關脈은 緊盛하니 | 95 |

| 편명 | 수록 페이지 | 조문내용 | 출현 순번 |
|----|--------|-------------------------------------------------------------------------------------|----------|
| 內傷 | 654 | 寸脈이 緊한 것은 寒이 實한 症이니 | 96 |
| 虛勞 | 664 | 寸脈이 弱하면 胃를 損하고 浮하고 大하면 속이 枯槁한 症이요 尺脈과 寸脈이 함께 微하면 …… 左右가 다 微細하면 氣와 血이 다 남음이 없는 것 | 97~100 |
| | 683 | 尺脈이 緩하고 澁한 症을 解休症 | 101 |
| 霍亂 | 688 | 關脈이 滑하면 霍亂과 吐瀉요, 또 滑하면서 고르지 못한 症은 ……代한 脈은 …… | 102~104 |
| 嘔吐 | 693 | 寸脈이 緊하고 尺脈이 澁하면 가슴이 가득하여 | 105 |
| | 693 | 寸脈이 緊하고 滑하며 數하고 微한데 起因하는 症 | 106 |
| | 693 | 딸꾹질하여 목이 잠기는 症은 寸脈은 緊하고 尺脈은 澁하 | 107 |
| 咳嗽 | 706 | 右關이 濡한 症은 飲食이 脾胃 傷한 症이고 左關이 弦하고 短한 症은 疲가 極 | 108, 109 |
| 積聚 | 741 | 心에 있으면 寸脈이 弦緊 ……에 있으면 關脈이 弦緊 臍下에 있으면 尺脈이 弦緊 | 110~112 |
| | 743 | 늘는 것이 게으르며 寸脈이 沈하고 滑하니 | 113 |
| 脈滿 | 770 | 關上脈이 虛한 症은 內脈이고 더디고 滑한 症은 脈이며 虛하고 緊澁한 症도 脈이고 或은 弦하고 遲하거나 또는 浮하고 數한 症도 다 脈이다. | 114~118 |
| 痰癥 | 799 | 가령 寸脈이 微하면 陽이 不足한 …… 가령 尺脈이 弱하면 이롭을 陰不足이라 | 119, 120 |
| 癰疽 | 848 | 振寒하고 發熱하며 寸脈이 滑하고 數하며 …… 그 脈이 緊하고 數하면 아직 膿이 되지 않는 것이요 緊脈이 없어지고 數하기만 하면 膿이 이미 된 것이다. | 121~123 |
| 怪疾 | 940 | 그 脈을 診察하니 左關이 浮促하거늘 | 124 |

70 임승일·박훈평·나창수

| 편명 | 수목 페이지 | 조 문 내 용 | 출원 순번 |
|----|-----------|-------------------------------------------------------|----------|
| 婦人 | 954 | 求嗣의 脈은 순전히 尺脈에 있다 右尺脈이 旺盛하면 火가 動하고 色을 좋아하며 | 125, 126 |
| | 954 | 左尺脈이 旺盛하면 陰이 虛하고 福되지 못하며 오직 沈滑하고 고른 것이 …… | 127 |
| | 954 | 여자가 生息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尺脈이 濇한것 | 128 |
| | 960 | 陰은 尺中이요 搏이란 手に 搏觸한다…… 尺脈이 搏擊하여 寸口脈과 달리 區別 | 129 |
| | 960 | 經脈이 運行하지 않은 것은 3月이 된 症이며 尺脈이 그치지 않는 症 | 130 |
| | 961 | 尺脈이 왼쪽이 편벽하게 크면 …… 오른쪽이 편벽하게 크면 …… 左右가 다 크면 …… | 131~133 |
| | 961 | 左右의 尺脈이 다 같이 沈實하면 …… 그렇지 아니하면 …… 左右의 尺脈이 다 같이 浮大하면 …… | 134~136 |
| | 969 | 尺脈이 轉急하여 노끈을 끊는 것과 구슬을 구르는 것 같은 것은 | 137 |

별표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脈診 醫案

| 원명 | 수록 페이지 | 조 문 내 용 | 비 고 |
|----|--------|--------------------------------------------------------------------------------------------------------------------------------------------|------|
| 氣 | 29 | 趺陽脈이 浮하고 澁한 때에 澁한 것은 衛氣가 虛한 것이요 | |
| | 29 | 趺陽脈이 微하고 緊할 때에, 緊한 것은 寒한 症이며 微한 것은 虛한 症이고 | |
| 胃 | 135 | 얼굴이 熱한 症은 足陽明이 病들고 兩跗의 脈이 堅한 것도 足陽明이 病든 症 | |
| 寒 | 551 | 趺陽脈이 浮하고 濡한데 浮하면 胃氣가 強한 症이고 濡하면 小便이 잣으며 | 趺陽脈 |
| 內傷 | 635 | 趺陽脈이 浮하고 數한 경우, 浮한 것은 胃를 傷한 症이요 數한 것은 脾를 傷…… | |
| 嘔吐 | 693 | 趺陽脈이 浮하고 澁한 경우에 浮한 症은 虛가 되고 澁한 症은 脾가 傷한 症이니 | |
| 消渴 | 778 | 趺陽脈이 數하면 胃中에 熱이 있는 것이니 | |
| 審病 | 470 | 尺膚가 滑하고 澤脂한 症은 風이요, 尺膚가 濡한 症은 風痺요, 尺膚가 粗하여서 마른 고기의 비늘과 같은 症은 水溢飲이 있는 것이요, 尺膚의 熱이 甚하고 脈이 盛하고 躁한 것은 病溢이요, 尺膚가 寒하고 그 脈이 적은 것은 泄하고 氣가 적은 症이요 | 尺膚 |
| 小便 | 174 | 內經에 가로되 人迎脈이 氣口보다 4倍로 크면 格이 되고 氣口脈이 人迎보다 4倍로 크면 關이 되는 法이다. | |
| 內傷 | 644 | 外感은 人迎脈이 浮緊하고 或은 洪大하고 數하다. | |
| | 644 | 內傷은 氣口脈이 緊盛하고 或은 滑하고 疾하다. | 氣口人迎 |
| 虛勞 | 664 | 男子의 久病에 氣口脈이 弱하면 죽고 強하면 사는 法이며 女子의 久病에 人迎脈이 強하면 살고 弱하면 죽는다 | |
| 咳嗽 | 726 | 平氣散 …… 大小便이 澁滯하고 氣口脈이 커서 보통 사람보다 倍나 되고 人迎脈이 沈하고 緩하면서 힘이 있으니 | |